

# 麻黃湯類의 臨床的 活用을 위한 研究

高聖培·金東熙·金聖勳\*\*·林樂哲\*\*

## I. 緒 論

《傷寒雜病論》은 東漢 張의 著書로 《內經》과 《難經》의 理論을 바탕으로 外感熱性病 및 各種 內科雜病에 對한 治療體系를 記述한 書籍으로, 現在까지도 基礎醫學과 臨床에서 重要的 位置를 占하고 있다<sup>2,3,10,11</sup>.

《傷寒雜病論》 原書는 戰亂으로 인하여 亡失되었고, 그 中에 傷寒과 有關한 內容이 晉代 王叔和의 整理收集을 通하여 《傷寒論》으로 名稱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으며, 現在의 《傷寒論》 《金匱要略》은 實際로 《傷寒雜病論》을 둘로 編成한 것이다<sup>10,14,15</sup>.

現在 傷寒論은 辨太陽病脈證并治上篇으로부터 辨陰陽易差後勞復病脈并治까지 總 398個 條文과 112個의 湯證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이러한 條文과 湯證은 傷寒 特有的 文法, 六經의 概念 및 編輯方法 등으로 인하여 여러 學者들에 의하여 많은 論難이 이루어져 왔다.

最近 傷寒論의 對한 研究로는 金<sup>16</sup>의 “傷寒論과 溫病論爭의 概括的 研究”, 朴<sup>17</sup>의 “傷寒論 三陰三陽에 對한 研究”, 金<sup>18</sup>의 “傷寒論 六經中風에 對한 文獻의 考察”, 宋<sup>19</sup>의 “傷寒論과 四象說의 比較”, 崔<sup>20</sup>의 “傷寒論 金匱要略에서 煩燥의 病理에 對한 研究” 등 주로 條文을 中心으로 諸家의 說을 比較 考察한 것이 大多數를 이룬다.

그러나 이러한 研究 傾向은 臨床醫書로서의 《傷寒論》이 자칫 條文 中心의 理論만을 傳達하는 手段으로 看做되고, 더불어 《傷寒論》에 記載된 많은 處方들이 實際臨床에서 利用되지 못하고 外面되거나 死藏되고 있는 傾向이 있다.

이에 著者는 傷寒處方의 傷寒太陽病證에 代表的인 處方으로 活用되는 麻黃湯類의 湯證病理에 對하여 歷代 醫家들의 見解를 比較·分析 하고, 臨床에서의 效果인 活用을 위하여 類方鑑別, 加減, 衍方 및 臨床報告 등을 中心으로 整理하여 보았다.

## II. 本 論

### 1. 麻黃湯

#### 1) 該當條文

[36] 太陽病 頭痛發熱 身疼腰痛 骨節疼痛 惡風 無汗而喘者 麻黃湯 主之

[37] 太陽與陽明合病 喘而胸滿者 不可下 宜麻黃湯 主之

[38] 太陽病 十日以去 脈浮細而嗜臥者 外已解也 設胸滿脇痛者 與小柴胡湯 脈但浮者 與麻黃湯

[47] 太陽病 脈浮緊 無汗 發熱 身疼痛 八九日不解 表證仍在 此當發其汗 服藥已 微除 其人發煩 目瞑 劇者 必衄 衄乃解 所以然者 陽氣重故也 麻黃湯 主之

[52] 脈浮者 病在表 可發汗 宜麻黃湯

[53] 脈浮而數者 可發汗 宜麻黃湯

[56] 傷寒脈浮緊 不發汗 因致衄者 麻黃湯 主之

[241] 陽明中風 脈弦浮大 而短氣 腹都滿 脇下及心痛 久按之 氣不通 鼻乾 不得汗 嗜臥 一身及面目悉黃 小便難 有潮熱 時時噦 耳前後腫 刺之小差 外不解 病過十日 脈續浮者 與小柴胡湯 脈但浮無餘證者 與麻黃湯 若不尿 腹滿 加噦者 不治

#### 2) 關聯條文

[3] 太陽病 或已發熱 或未發熱 必惡寒 體痛嘔逆 脈陰陽俱緊者 名爲傷寒.

[50] 脈浮數者 法當汗出而愈 若下之 身重心悸者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病理學教室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內科學教室

不可發汗 當自汗出乃解 所以然者 尺中脈微 此裏虛 須表裏實 津液自和 便自汗出愈

[51] 脈浮緊者 法當身疼痛 宜以汗解之 假令尺中遲者 不可發汗 何以知其然 以營氣不足 血少故也

3) 類方鑑別

(1) 桂枝湯과의 鑑別

麻黃湯：太陽傷寒，寒邪所傷營陰內郁，無汗表閉，脈浮緊 - 表實證이다.

桂枝湯：太陽中風，感受風邪營陰內弱，汗出肌疏，脈浮緩 - 表虛證이다.

(2) 大青龍湯과의 鑑別

大青龍湯의 類方鑑別 參照

(3) 麻黃附子細辛湯과의 鑑別

모두 頭痛發熱，惡寒無汗의 證狀이 있지만，麻黃湯證의 脈은 浮緊하고，麻黃附子細辛湯證은 陽氣가 比較的 虛하므로 脈沈하다.

區別	病因病機	脈證
麻黃湯	風寒束表， 皮毛爲寒邪所遏， 邪氣不外泄， 肺氣不能宣通噴 鬱而致之實喘	發熱惡寒， 頭痛身疼， 無汗而喘， 脈浮緊
麻杏石 甘湯	表邪化熱， 壅遏于肺所致之 肺熱實喘	不惡寒， 無頭痛身疼， 或汗出， 或不汗出， 且咳嗽痰黃而粘， 脈浮滑或浮弦

4) 臨床應用

現代臨床에서는 本方을 大部分의 感氣，流行性 感氣<sup>1)</sup>，肺炎，氣管支炎，氣管支 喘息<sup>2)</sup>，風濕痛，濕性 風濕性關節炎<sup>3)</sup>，水腫 等の 傷寒表實한 者에게

1. 太陽陽明合病，不利不嘔者，是裏氣實不受邪也。若喘而胸滿，是表邪盛，氣壅于胸肺間也，非結胸也，故不可下，以麻黃湯發表通肺，喘滿自愈。(《醫宗金鑑》)

肺寒受邪氣，其症見面赤，邪鬱咳嗽痰喘胸滿證者，非肺病也。蓋皮毛外閉，邪熱內攻，故用麻黃湯。(《傷寒論集注》)

初生兒有時時發熱，鼻息不通，不能哺乳者，用此方可即愈。(《類聚方廣義》)

고루 使用할 수 있다. 또한 癩癩<sup>4)</sup>，結膜炎<sup>5)</sup>，哮喘，小兒痘疹，小兒夜尿 等の 疾患에서는 반드시 本方의 證狀이 나타나는 者에게 使用할 수 있다.

5) 臨證加減法

(1) 無喘者는 去 杏仁하고，만약 不喘하고 痰으로 喘證이 있는 者는 半夏，嘔水者는 生薑，嘔熟食者는 神曲，胸悶者는 枳殼，腹脹者는 厚朴을 加한다.

(2) 風寒襲肺하여 喘息胸悶，咳嗽，咳痰稀薄，色白，初期兼惡寒，頭痛，無汗，口不渴，舌苔薄白，脈浮緊한 者는 病情을 參酌하여 紫蘇子，化紅，桔梗을 加하여 止咳平喘의 功效을 增強해야 한다.

(3) 風寒襲肺하여 惡寒身痛，喘滿心煩，口乾，舌苔黃白兼有한 證狀이 나타는 것은 寒熱來雜된 證이므로，本方에 石膏，黃芩，連翹之類를 加하여 外散風寒，內清裏熱한다.

6) 衍方

(1) 麻黃加知母湯：本方에 知母를 加한 것으로，間有汗出하며 不解한 者를 治療하는데，이는 餘熱이 未清한 때문이다. 知母로 佐하여 發表劑中 清熱의 意를 살핀 것이다.

(2) 桂麻各半湯：本方과 桂枝湯을 合한 것으로，太陽에 留하는 未盡된 寒熱을 外達케 한다.

(3) 桂枝二越婢一湯：本方에서 杏仁을 去하고，石膏를 加하고 桂枝湯을 合한 것으로 太陽熱多寒少하는 寒熱을 治療한다.

(4) 還魂湯：本方에서 桂枝를 去한 것으로 邪在太陽하여 卒中暴厥，口噤氣絕한 것에 下咽奏效한데，完全히 不溫되면 다시 取汗한다.

(5) 麻黃加朮湯：本方에 白朮을 加한 것으로 外感風寒濕邪，身體煩疼，寒熱無汗한 者를 治療한다.

2. 治卒上氣，喘息，用本方搗爲末，溫服方寸七，日三。(《肘後方》)

3. 治冷風哮喘風寒濕三氣成痺，用此輒效。(《傷寒來蘇集·傷寒附翼》)

4. 瘧證初期，壯熱無汗，由于外寒閉束者，可以權用。(《生生堂治驗》)

5. 凡日暴病太陽，白珠血作痰紅色，涕清如水，汨瀾如泉，畏光甚，無眵，兩眉頭痛者，寒也，麻黃湯主之。(《中醫眼科六經法要》)

治風熱所侵而眼目赤，生障翳。(《眼科錦囊》)

4) 基本病理 -中略-

主症：惡寒，發熱，頭項強痛，身疼，腰痛，骨節疼痛，無汗而喘，苔薄白，脈浮緊  
副症：噎而胸滿，脈浮數，鼻衄



脈證	備考	病理
惡寒	《素問·調經論》 “陽受氣于上焦 而溫皮膚分肉之間 今寒氣在外則上焦不通 上焦不通則 寒氣獨留于外 故寒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惡寒者因風寒所傷故惡之也。「醫宗金鑑」</li> <li>● 惡寒者本寒之氣也蓋太陽之上寒氣主之以寒爲本而熱爲標故也。「張隱庵」</li> <li>● 惡寒者雖發熱而惡寒不止非無熱也。「張路玉」</li> <li>● 惡寒者太陽爲邪所襲鬱而不宣故。「程郊倩」</li> <li>● 六經雖各惡寒而太陽應寒水之化故惡寒特甚。「柯韻伯」</li> <li>● 太陽之上寒氣主之…蓋人周身八萬四千毛竅太陽外衛之氣也若病太陽之經則必惡寒。「陳修彥」</li> <li>● 寒邪在表不能任寒故令惡寒。「喻嘉言」</li> </ul>
發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經曰凡傷於寒則爲病熱爲寒氣客於經中陽經怫結而成熱。「成無已」</li> <li>● 感太陽之標陽而爲熱。「張隱庵」</li> <li>● 太陽受病雖同寒屬陰邪則發熱。「程郊倩」</li> <li>● 寒邪外束人身之陽不得宣越故令發熱。「喻嘉言」</li> </ul>
頭項強痛，身疼，腰痛骨節疼痛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寒則傷營頭項強痛身疼腰痛以至牽連骨節疼痛者太陽經血不利…氣病則麻血病則痛。「成無已」</li> <li>● 太陽主一身之表風寒外束陽氣不伸故一身盡痛。「柯韻伯」</li> <li>● 太陽受病雖同寒屬陰邪則發熱。「程郊倩」</li> <li>● 足太陽經起目內眥循頭背腰膂故所過疼痛不利「喻嘉言」</li> <li>● 足之太陽其脈上際巔頂而下連腰足而寒之爲氣足以外閉衛陽而內鬱營血。「喻嘉言」</li> <li>● 體痛者寒主緊寒而傷營則營實而強衛虛而弱矣營強則血溢衛虛而氣體故痛也。「方中行」</li> </ul>
無汗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寒并於營 營實而衛虛者 無汗而惡風。「成無已」</li> <li>● 風寒客于入則皮毛閉。「柯韻伯」</li> <li>● 寒主閉藏 故令無汗。「喻嘉言」</li> <li>● 汗爲血之液血爲營營強則腠理閉密雖熱汗不出「方有執」</li> </ul>
舌苔白 脈浮緊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夫陰陽邪正相持其脈則緊 寒傷通體之表陽故脈陰陽俱緊「張隱庵」</li> <li>● 以寒主動急而且實邪故緊而浮沈俱有力。「程郊倩」</li> <li>● 寒性強勁而然也。「方中行」「尤在涇」「喻嘉言」</li> <li>● 寒則令脈緊「柯韻伯」</li> </ul>
喘，胸滿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營強衛弱故氣逆而喘「成無已」</li> <li>● 寒主閉藏…人身之陽既不得宣越外則必壅塞於內 故作喘「張隱庵」</li> <li>● 太陽爲諸陽主氣陽氣鬱於內故喘。「柯韻伯」</li> <li>● 表實而無汗邪不得汗而出則內壅而肺「陳修園」</li> <li>● 若毛髮之氣不得外出則反入於內壅塞於肺上出口鼻而喘寒傷皮毛衛氣不外出是以環於內而上壅而喘「唐容川」</li> <li>● 然太陽之氣與肺之母氣相合邪從皮毛而入鬱逆肺氣以故作喘「沈目南」</li> </ul>

(6) 麻杏薏甘湯 : 本 方에서 桂枝를 去하고, 薏苡仁을 加한 것으로 外感風濕, 一身盡痛, 發熱, 午後較甚한 者를 治療한다.

(7) 三拗湯 : 本 方에서 桂枝를 去한 것으로, 外感風寒, 鼻塞咳嗽, 氣促痰多한 者를 治療한다.

(8) 華蓋散 : 本 方에서 桂枝를 去하고, 蘇子, 桑白皮, 陳皮, 赤茯苓을 加한 것으로, 外感風寒, 肺氣失宣, 痰阻氣滯하여 咳嗽上氣, 痰吐不利, 呀呷有聲에 이른 者를 治療한다.

(9) 麻黃人蔘芍藥湯 : 本 方에서 杏仁을 去하고, 黃芪, 人蔘, 當歸, 芍藥, 麥門冬, 五味子을 加한 것으로 內虛外感吐血을 治療한다.

(10) 麻黃飲 : 本 方에서 杏仁을 去하고, 當歸, 陳皮, 生薑을 加한 것으로, 傷寒瘟疫, 陰暑虐疾 등을 治療한다.

(11) 金沸草散 : 本 方에서 桂枝, 杏仁을 去하고, 旋覆花, 前胡, 荊芥穗, 半夏, 赤芍藥을 加한 것으로, 感冒風寒으로 惡寒發熱, 頭痛鼻塞, 咳嗽痰多, 舌苔白膩, 脈浮한 것을 治療한다.

(12) 杏蘇散 : 本 方에서 麻黃, 桂枝를 去하고, 蘇葉, 制半夏, 前胡, 桔梗, 枳殼, 橘皮, 茯苓, 生薑, 大棗를 加한 것으로, 外感涼燥으로 나타나는 頭微痛, 惡寒無汗, 咳嗽痰稀, 鼻塞口塞, 苔白, 脈弦의 證狀을 治療한다.

(13) 麻黃加桔梗湯 : 本 方에 桔梗을 加한 것으로, 麻黃湯과 主治가 같다.

7) 臨床報告

(1) 外感風寒表實證

性別 및 年齡 : 男, 61歲.

證狀 : 平素 健壯함. 突然히 發熱惡寒, 頭痛, 周身關節疼痛, 微喘하였으며, 診斷時 身熱無汗, 惡寒, 喘息, 苔薄質淡, 脈浮弦而緊하였다.

辨證 : 風寒外束으로 辨證함.

治療 : 麻黃 9g, 桂枝 5g, 杏仁 9g, 炙甘草 5g 으로 麻黃湯 一劑를 服用한 後 頭前後微汗, 熱退, 喘止하였고, 다시 一劑를 服用한 後에는 밤에 熱眠을 하였으며, 다음날 아침에 爽快해짐.

(2) 太陽陽明合病證

證狀 : 傷寒으로 脈浮而長, 喘而胸滿, 頭身痛, 腰背強, 鼻乾不得眠하였다.

辨證 : 太陽陽明合病證으로 辨證함.

治療 : 喘而胸滿을 主症으로 認識하여 麻黃湯을 投與함<sup>6)</sup>

(3) 風寒表實兼邪陷

性別 및 年齡 : 女, 60歲.

證狀 : 受冷하여 高熱이 된지 2週동안 繼續되어 某醫院에서 治療하였으나 效果가 없었다. 비록 여름이라해도 棉衣를 입고, 惡寒이 甚하였으며, 發熱無汗, 頭痛體痛하고, 胸前下部에 硬結一塊를 自覺하였다. 欲吐, 舌苔黃厚膩, 脈弦數하였다.

辨證 : 太陽傷寒이었으나 年久體虛로 正氣가 不足해져 邪氣가 乘한 것으로, 表가 未解한데 邪氣가 이미 胸中에 入하여 結胸을 形成한 것으로 辨證.

治療 : 麻黃湯合小青龍湯을 服用한 後 땀이 나면서 病이 治愈되었다.<sup>7)</sup>

(4) 蕁麻疹

證狀 : 春節前의 某日 아침에 추위를 무릅쓰고 방아간에가서 가루를 내다가 突然히 身痒한 感이 있었다. 前後身 및 上肢에 두루 斑塊가 突出하였고, 顏色은 不紅하며 時抓時起, 時起時消하였다. 처음에는 浮萍方을 使用하였으나 無效하였다.

辨證 : 患者의 脈이 沈하고, 肢寒한 것과 狀況을 根據하여 寒邪에 感한 것으로 보았다.

治療 : 麻黃湯 原方을 服用한 後에 結塊가 解消되고 癢痒感이 그치며 治愈되었다.<sup>8)</sup>

(5) 寒閉失音

證狀 : 風寒이 極烈하고, 雨雪이 交代로 내리는 날에 오리를 사냥하여 심한 疲困感을 느낌. 늦게 돌아와서 冷茶를 마심. 그 날 밤늦게 惡寒發熱, 咳嗽聲嘶, 言語失音함.

辨證 : 脈浮緊, 舌上無苔, 身疼無汗한 것은 太陽表實證이고, 聲音은 金破不鳴이 아니라 金實不鳴이다.

治療 : 風寒이 外襲하여 肺의 治節이 失職된 것이므로, 그 音聲을 治療할 必要가 없다. 처음에

6. 《傷寒九十論·證八十四》

7. 貴陽中醫學院報 1979 ; 2 : 5

8. 《傷寒解惑論》第一版, 126項, 山東科學技術出版社, 1978年版

麻黃湯을 麻黃 9g, 桂枝 6g, 杏仁 6g, 甘草 3g로 服用케 한 後, 다음날 外邪가 解하고 聲音이 比較的好轉되었으나, 咳嗽에 痰이 있고 胸微脹함. 本方에 桂枝를 去하고 麻黃을 4.5g으로 낮추고 貝母, 桔梗 各 6g, 白叩 3g, 細辛 1.5g을 加하여 二貼을 服用한 後 聲音이 原狀으로 回復됨.

1. 大青龍湯

1) 該當條文

38. 太陽中風 脈浮緊 發熱惡寒 身疼痛 不汗出而煩躁者 大青龍湯主之

若脈微弱 汗出惡風者 不可服 服之則厥逆 筋惕肉瞤 此爲逆也

39. 傷寒 脈浮緩 身不疼 但重 乍有輕時 無少陰證者 大青龍湯發之

2) 類方鑑別

(1) 麻杏甘石湯과의 鑑別

區分	病因·病機	汗, 喘, 熱	治法
大青龍湯	表寒이 盛하고 裏熱이 있다.	無汗, 或喘, 高熱	解表發汗을 主로, 清熱을 佐로, 麻黃을 重用한다
麻杏甘石湯	表寒이 輕하고 裏熱이 重하니.	有汗, 喘, 無大熱	清裏熱을 主로, 解表를 佐로, 石膏를 重用한다.

(2) 越婢湯과의 鑑別

身重, 惡寒, 發熱, 煩躁 等の 共通點을 지니고 있다.

大青龍湯 : 表寒兼裏熱, 病勢가 急하고 證이 무겁고 汗이 안나고 惡寒이 있고 煩躁가 極熱하고 藥을 먹으면 汗이 많다.

越婢湯 : 風水에 熱이 낀 것으로, 病情이 緩慢하고 症勢가 가벼우며 汗이 나고 惡寒이 없고, 煩躁가 가볍고, 水腫이 있으며, 大小便이 잘 나오지 않고 藥을 먹으면 汗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단지 利尿의 效果가 있다.

(3) 桂枝二越婢一湯과의 鑑別

發熱 및 惡寒의 共通症狀이 있다.

大青龍湯 : 身痛, 無汗, 煩躁가 있으며, 表寒裏熱證이 重하다, 發汗清熱力이 比較的 強하다.

桂枝二越婢一湯 : 熱이 많고 寒이 적으며, 表寒裏熱이 比較的 가볍고, 發汗 清熱力이 比較的 弱하다.

4) 臨床應用

本方은 流行性 感冒, 肺炎, 氣管支哮喘, 流行性 腦脊髓膜炎, 麻疹, 胸膜炎, 急性關節炎, 丹毒, 急性腎炎, 急性皮膚病性浮腫, 急性眼病<sup>9)</sup>, 卒中閉 等の 急性熱病初期의 高熱에 表寒과 內熱, 煩躁가 보일 때 쓸 수 있다.

또한 急性熱病으로 寒熱이 重하고 煩하여 發汗 清熱이 必要할 때도 쓸 수 있다.

5) 隨證加減法

(1) 本方에 白朮을 加하면 <金匱要略>의 麻黃加朮湯, 越婢加朮湯이 되는데 이는 汗이 나면서 喘하고 몸에 大熱이 없고 몸이 무거울 때 쓴다.

(2) 本方에 桂枝를 去하고 薏苡仁을 加하면 越婢加薏苡仁湯 卽 越婢湯, 麻黃杏仁薏苡甘草湯의 組成이 되는데, 이는 汗出當風하여 潮熱, 身痛하고, 或 風水惡風, 一身悉腫, 脈浮하고, 渴이 없으며 계속 自汗이 나오고 大熱이 없을 때 使用한다.

(3) 流行性 感冒, 肺炎, 或은 기타의 急性病에 惡寒은 가볍고 熱이 甚할 때는 桂枝를 去하고 黃芩을 加하고 雙花, 連翹, 板蘭根, 大青葉, 蒲公英 等の 清熱解毒의 藥을 參酌하여 加하고, 만약 寒이 甚하고 熱이 가벼울 때는 麻桂의 用量을 많이 하고 石膏의 用量을 적게 하며, 咳嗽과 더불어 痰을 吐하였으나 편치 못한 境遇에는 桔梗, 前胡, 白前 等の 止咳化痰藥을 加한다.

(4) 痰飲과 流行性浮腫을 治療할 때는 赤小豆, 五皮飲을 넣어 利水作用을 增加시킨다.

(5) 石膏는 大寒한 藥이므로 무릇 高熱하고 煩躁할 때는 반드시 使用하는데, 成人은 대체로 30g을 넣으며 甚하면 60-90g까지 넣는다.

6) 衍方

(1) 越婢湯 : 本方에서 桂枝, 杏仁을 去한 것으로, 腰以上の 浮腫과 얼굴과 눈의 浮腫이 甚하고

9. 此方은 發汗의 峻劑이고 溢飲, 肺脹, 脈이 浮大하고 表證이 盛할 때 效果가 있다. 또 流行性 眼疾(赤眼), 或은 風眼初期에 이 方에 車前子를 加해서 大發汗하면 特效가 있다. (<方函口結>)

汗出하며 惡風微熱하고 口渴할 때 使用한다. (《金 으로, 表實無汗, 三焦熱盛, 表裏大熱한 證狀으로

3) 基本病理

-中略-

主症：惡寒，發熱，身痛，不汗出而煩躁，舌紅苔白，或兼黃，脈浮緊。

副症：或身不痛，但重，乍有輕時，喘咳而渴



脈 證	備 考	病 理
惡寒，發熱 身痛，無汗 脈浮緊		<p>● 本湯의 適應病症이 上記한 麻黃湯證과 煩燥인 加답에  대부분의 醫家들은 麻黃湯證 病機와 同一 或 類似하게 記述함</p>
煩 燥		<p>● 陰寒在表鬱住陽熱之氣在經而生煩熱 熱則病搖其陰而作燥. 「程郊倩」</p> <p>● … 表實之人 不易得邪 設得之不得泄衛氣 而反以實陽氣 陽氣既實 表不得通 閉熱于經則脈緊身痛 不汗出而煩燥 「尤在涇」</p> <p>● 風熱相搏熱淫於內則心神煩搖 風淫末疾故手足燥亂 「柯韻伯」</p> <p>● 煩燥者太陽而得少陰之氣化也此風邪隨太陽之氣內入與少陰之熱氣相接 「張隱庵」</p> <p>● 不汗出而煩燥者太陽鬱蒸之所致也風陽邪也寒陰邪也陰寒鬱於外則無汗陽熱蒸於內則煩燥此風寒兩傷 營衛同病 「金鑑」</p> <p>● 素體陽盛 外感風寒 寒邪閉束肌表 胃氣不能逐邪外出 反被寒邪鬱遏而生熱 成表寒裏熱之證 「王琦」</p>

〔置要略〕

(2) 續命湯：本 方에서 生薑을 乾薑으로 바꾸고 人參을 加한 것으로, 中風으로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不知痛處하며 혹 拘急하여 轉側할 수 없는 것을 治療한다.

(3) 防風通聖散：本 方에서 桂枝, 杏仁, 大棗를 去하고 防風, 薄荷, 荊芥, 黃芩, 連翹, 梔子, 桔梗, 大黃, 芒硝, 當歸, 川芎, 芍藥을 加한 것으로, 風熱이 壅盛하여 表裏三焦가 모두 實하여, 惡寒, 發熱, 頭痛, 眩暈, 咽喉不利, 大便秘結, 小便黃短, 舌苔黃埃, 脈洪數, 或弦滑한 證狀이 나타날 때 使用한다.

(《宣明論》)

(4) 三黃石膏湯：本 方에서 桂枝, 杏仁, 甘草를 去하고 淡豆豉, 黃芩, 黃柏, 梔子, 細茶를 加한 것

壯熱無汗, 身體拘急, 面紅目赤, 鼻乾口渴, 煩躁不眠, 神昏囈語, 鼻嚏, 發斑, 脈滑數한 境遇에 使用한다.

(5) 銀翹散：豆豉, 薄荷, 荊芥로 麻黃을 代身하고, 大力子, 桔梗으로 杏仁을 代身하며, 葦莖, 雙花, 連翹, 竹葉으로 石膏를 代身하고, 桂枝, 薑, 棗를 去한 것으로, 外感으로 伏氣가 動하여 外邪未解하고 아울러 潛伏된 熱이 互動하여, 發熱無汗 或은 有汗不多, 微惡風寒, 頭痛, 口渴, 咳嗽咽痛, 舌尖紅, 苔薄 或薄紅, 脈浮數한 것을 治療한다. (《溫病條辨》)

7) 注意事項

(1) 本 方은 峻劑한 發汗劑이므로 만약 脈이 微弱하고 汗出惡風하며 몸이 虛弱한 者에게는 使用

을 禁한다.

(2) 不適切한 使用으로 筋傷肉闢, 厥逆의 危險한 證狀이 나타나는데, 이 때는 急히 眞武湯 或은 茯苓四逆湯을 使用한다.

(3) 陽熱이 胸中에 鬱結되어 陽氣가 正常的으로 全身에 流通이 안되어 때때로 몸이 重着한 느낌이 있을 때 本方을 使用할 수 있는데, 이 때도 만일 肌膚에 濕潤한 느낌이 있으면 역시 쓸 수 없으며, 表症의 自汗이 있다면 더욱 쓸 수 없다. 잘못하면 發汗이 그치지 않아 亡陽에 이르게 된다.

(4) 만약 本方을 服用한 後 汗出하며 煩躁하고 表證이 未解하였으면 다시 本方을 쓸 수 없고, 마땅히 桂枝湯을 써서 營衛를 調和시켜 表氣를 調和시켜야 한다. 汗出이 過多할 때는 附子를 加해 溫陽시켜 固表하고 斂汗시켜야 한다.

(5) 表證이 未解한데 다시 風寒을 받아서 無汗의 症狀이 나타나면 이는 正氣가 이미 虛한 것으로 大靑龍湯은 절대로 쓸 수 없고, 麻黃湯도 使用해서는 안된다. 마땅히 桂枝麻黃各半湯을 쓰는데 桂枝湯과 麻黃湯의 量을 各各 2/3로 줄여서 合하여 方을 만들어, 發汗과 함께 營衛를 調和시켜서 汗出을 輕微하게 해야 한다.

### 5) 臨床報告

#### (1) 高熱

性別 및 年齡 : 男, 36歲.

證狀 : 發病한지 이미 3日이 되었는데, 惡寒高熱(39.5℃), 無汗煩躁, 頭身痛, 脈浮數, 舌苔薄白 등의 症狀이 나타남.

治療 : 麻黃, 桂枝 各 4.5g, 杏仁 9g, 生石膏 30g, 生甘草 3g, 竹茹 4.5g, 竹葉 30片, 鮮蘆根 2尺으로 水煎하여 一劑를 服用한 後 寒熱이 除去되었으나 咳嗽은 더욱 甚해졌다. 다시 原方에 桂枝를 去하고 桔梗, 桑葉 4.5g을 加하여 一劑를 服用한 後 證狀이 消失되었다<sup>10)</sup>.

#### (2) 流行性 腦脊髓膜炎

性別 및 年齡 : 女, 8歲.

證狀 : 갑자기 發熱畏寒, 身熱, 惡寒, 無汗肢冷 頭痛項強하며 噴射性 嘔吐로 宿食과 痰飲을 吐하

고 온 몸에 紫色의 瘀斑이 생기고 神志가 時清時昧하였다. 舌質이 紅하고 苔薄白함. 洋學的으로 流行性 腦脊髓膜炎으로 推測됨.

辨證 : 太陽少陰兩感으로 辨證.

治療 : 大靑龍湯에 附子를 加하였다. 麻黃 9g, 桂枝 9g, 炙甘草 9g, 光杏仁 9g, 生石膏 45g, 熱附片 6g, 紅棗 6枚, 生薑 3片으로 水煎하여 2時間 間隔으로 服用시켰다. 2貼을 먹고 頭痛項強, 發熱惡寒의 症狀이 減少되고 四肢冷한 것은 따뜻해지며 嘔吐가 그치었다. 體溫도 39.4℃로 떨어졌으나, 단지 瘀斑이 없어지지 않았다. 다시 原方에 石膏를 30g을 加해서 2貼을 服用한 後, 모든 證狀이 消失되었으나 단지 머리에 陳發性的인 輕微한 頭痛이 남았다. 다시 1劑를 더 服用한 後 諸證이 모두 治療되었고, 精神狀態도 밝아졌다<sup>11)</sup>.

#### (3) 腫滿喘息

證狀 : 腫滿이 있어 診察해 보니 喘鳴 迫息하고 煩渴하며 小便不通함.

治療 : 大靑龍湯을 服用시켰는데, 40日이 지나도 藥效가 없었다. 患者가 藥을 잘못 고른 것으로 疑心하였으나, 내가 “藥效의 遲速을 論하지 말고, 方證에 的中하였는지가 重要하다.”하고 다시 使用하니 20日이 지난 後에는 急變하였다. 가서 보니 證狀이 더 甚해지고 惡寒하고 漉漉汗出하였다. 家族들은 석연치 않게 여기며 죽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였다. 그래도 藥을 繼續 쓰니 밤새 옷을 6-7回 갈아입은 程度로 땀이 난 後 다음날 腫滿이 半으로 줄고 喘鳴이 가라앉고 小便이 잘 나왔다. 다시 10日이 지난 뒤에는 모두 恢復되었다<sup>12)</sup>.

#### (4) 溢飲

性別 및 年齡 : 男, 52歲.

證狀 : 平素에 哮喘을 앓고 겨울이 되면 더욱 甚함. 3日前부터 惡寒 發熱하고 無汗하며, 咳嗽은 더욱 甚해지고, 痰咳는 많으나 不爽했으며, 喉間에 水鷄聲이 나고, 面目浮腫과 四肢沈重이 나타남. 脈은 浮滑하고 數하며 舌紅苔薄白함.

辨證 : 外寒裏熱挾飲, 逆射于肺, 旁流四末.

10. <中醫雜誌> 1966 ; 3 : 23

11. <上海中醫藥雜誌> 1966 ; 3 : 98

12. 皇漢醫學, 209項

治療 : 金匱의 大靑龍湯으로 治療하였다. 麻黃 3g, 桂枝 4.5g, 生石膏 30g, 杏仁 9g, 生甘草 3g, 良薑 1.5g, 桑白皮 6g, 乾薑皮 6g, 竹瀝半夏 6g, 蘇子 9g, 紅棗 5枚로 3劑를 連服한 後 痰이 많이 나고, 喘咳가 줄고 浮腫 역시 減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痰이 많고 목에서 소리가 나서 原方에 葶藶子 3g을 加하여 3劑를 服用한 後, 脈이 滑하고 苔는 薄黃하며 舌質은 紅하고 咳嗽喘息도 조금씩 平定되었다. 痰은 稠黃으로 바뀌었다. 이는 表寒은 없어지고 痰熱이 肺에 影響을 준 것으로 肺가 未淨된 것이다. 다시 原方에 桂枝를 去하고 3劑를 服用한 後 完治되어 退院하였다<sup>13)</sup>.

3. 小靑龍湯

1) 該當條文

40. 傷寒 表不解 心下有水氣 乾嘔發熱而欬 或渴或利 或噎 或小便不利 少腹滿 或喘者 小靑龍湯主之

41. 傷寒 心下有水氣 欬而微喘 發熱不渴 服湯已渴者 此寒去欲解也 小靑龍湯主之

2) 類方鑑別

(1) 大靑龍湯과의 鑑別

두 가지 方證은 寒邪가 太陽의 表를 外束하여 發熱, 惡寒, 無汗, 脈緊 等 症을 보이므로 治療에 있어서 둘 다 麻黃, 桂枝를 使用하여 發汗解表하며 表裏를 雙解한다는 점은 共通의이다.

大靑龍湯證은 表寒外束하고, 裏에 閉熱이 있어 表裏가 모두 實證에 屬하며, 內의 陽熱邪로 因하여 煩躁가 나타나는데 裏熱證의 煩躁를 除外하고는 表寒證에 屬하므로 表寒이 重하고 裏熱이 輕한 까닭에 藥理는 表寒을 散하는 麻黃湯의 基礎위에 石膏를 加하여 裏熱을 淸하는 반면 小靑龍湯證은 表寒外束하고 內에 水飲이 있어 表裏가 모두 寒하며 實中有虛하다.

心下の 水氣停滯로 因하여 胃氣가 逆하게 되어 乾嘔가 發生하고 寒邪가 肺를 射하여 咳嗽痰多하며 飲邪가 內에 伏함으로 因하여 裏證이 많고 단지 發熱, 惡寒의 表證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治療上에 發表하는 藥은 같으나 裏를 治하는 味가

다르며 解表散寒하는 麻黃, 桂枝를 除外하고는 나머지는 裏水를 溫化하는 藥味라는 差異點이 있다.

方別	類別 病因 病機	虛 實	證 狀		治 法
			相同	相異	
大靑龍湯	太陽表寒 裏熱, 表重裏輕	表裏 皆實	發熱惡寒 無汗	煩躁	發散表 寒 淸解內 熱
小靑龍湯	太陽表寒 裏水, 裏重表輕	實中 有虛	發熱惡寒 無汗	咳而微 喘	發散表 寒 濕化裏 水

(2) 五苓散과의 鑑別

모두 表不解, 水飲의 疾患에 쓰이는데 本方은 寒飲이 心下에 있어 咳喘이 主症이며 無渴, 無汗 하나, 五苓散은 膀胱의 氣化가 不行한 까닭에 小便不利가 主症이고, 口渴, 有汗하다.

(3) 蘇子降氣湯과의 鑑別

모두 降逆, 止喘, 祛痰之劑이나 本方은 祛邪水에 基礎하여 立方하였고, 蘇子降氣湯은 理氣에 基礎하여 立方한 점이 差異點이다. 만일 水飲으로 因하여 氣分이 傷하고 氣가 透達하지 못하는 境遇에는 兩方을 合用하기도 한다.

4) 現代 臨床應用

現代臨床에서 本方은 表寒內飲을 兼한 證狀即, 寒飲咳喘에 屬하는 者에게 廣範圍하게 利用된다. 流行性感冒, 急慢性氣管支炎<sup>14)</sup>, 肺炎, 濕性胸膜炎<sup>15)</sup>, 冷哮喘(支氣管喘息 포함), 百日咳<sup>16)</sup>, 急慢性腎

14. 100例의 小兒 氣管支哮喘 患者를 治療하였다. 3개의 類型으로 나누었다. 寒性(42例) 患者는 本方으로 治療效果가 좋았고, 寒性에 陽虛(47例) 를 兼한 患者는 本方에 二味黑錫丹 或은 附子, 磁石等을 加하고, 熱性(11例) 患者는 麻杏甘石湯으로 治療하였다.

<上海中醫藥雜誌>1965 ; 5 : 10

15. 溢飲의 病에 걸린 者는 마땅히 發汗해야 하니 大靑龍湯과 小靑龍湯이 主之한다. 咳逆倚息, 不得臥하는 者는 小靑龍湯으로 主之한다. (<金匱要略>)

16. 本方에 沙蔘, 烏梅, 天花粉, 茯苓等을 加하여 百日咳 患者 102例를 治療하였다. 3劑 服用하는 것을 한 번의 治療過程으로 삼았는데, 그 中에 49例가 첫 번째 過程에서 證狀이 消失되었고, 또 49例는 證狀이 明顯하

13. <江蘇中醫> 1964 ; 11 : 11



3) 基本病理

-中略(表參考)-

主症：惡寒，發熱，無汗，身痛，乾嘔，咳嗽，喘息，痰多稀白，苔薄白或水滑，脈浮或弦緊。  
副症：或渴，或利，或噎，或小便不利，少腹滿，或脈弦細，細滑。



脈證	備考	病理
惡寒，發熱 身痛，無汗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0. "傷寒 表不解 …小青龍湯主之" 條文에 準하여, 本 脈證의 病機를 大部分의 醫家들은 太陽傷寒 表證으로 認識하였다.(麻黃湯證 參照)</li> </ul>
乾嘔 咳嗽 喘息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0. "傷寒 表不解 心下有水氣 …小青龍湯主之", 41. "傷寒 心下有水氣 …小青龍湯主之" 條文에 準하여 心下有水氣를 主 病機로 認識함.</li> <li>◎ 水寒相搏肺寒氣逆故乾嘔發熱而咳乾針經曰 "形寒飲冷則傷肺" 以其兩寒相感中外皆傷故氣逆而上逆 「成無已」</li> <li>◎ 經云在天爲寒在地爲水水氣即寒水之氣而無形也…致心下有水氣水氣逆於心下故乾嘔…水寒上逆故咳 「張隱庵」</li> <li>◎ 傷寒表之寒邪不解而動裏之水氣遂覺心下有水氣蓋太陽主寒水之氣運於皮膚出入於心胸今不能運行出入而致寒水之氣汎溢而無所底止水停於胃即乾嘔水氣與寒邪留戀而不解故發熱肺主皮毛 水氣合之則發熱而咳 「陳修園」</li> <li>◎ 乾嘔而咳是水氣爲患水氣者太陽寒水之氣太陽之化在天爲寒在地爲水其傷人也淺者皮肉筋骨重者害及五臟心下有水氣是傷臟水氣未入于胃故乾嘔咳者水氣射肺 「柯韻伯」</li> <li>◎ 素有飲之人一感外邪傷皮毛而蔽肺氣則便停於心下而上下之氣不利焉於時喘滿咳嘔相因而見… 「周禹載」</li> <li>◎ 內有水飲則 水寒相搏水留胃中 故乾嘔而噎水寒射肺故咳而喘 「汪詡庵」</li> </ul>
渴，利，噎， 小便不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氣不化而水不行 「張隱庵」</li> <li>◎ 水性動其變多水氣下而不止則或渴或利而上而不下則或噎或喘留而不行則小便不利而少腹因滿也 「柯韻伯」</li> <li>◎ 然水性之變動不居不得不於未然之時先作或然之想或水縮而正津不行則爲渴或水漬入腸間則爲利或逆之上則噎或留而不行則爲小便不利 「柯韻伯」</li> <li>◎ 水停則氣不化津不升故渴水漬腸間故下利水縮下焦則小便不利而少腹滿水氣內漬所傳不一故有或爲之證 「汪詡庵」</li> </ul>

계 減少하였다. 98例은 두번게 治療過程에서 完治되었다.  
全體 治療率은 97%였다. <山東醫刊>1966 ; 9 : 31

炎17), 眼病(結膜炎, 淚囊炎, 虹膜炎之類) 等に 使用

할 수 있다.

#### 5) 臨證加減法

(1) 表實無汗, 惡寒咳喘이 比較的 重한 者는 麻黃을 重用하고 다시 杏仁, 厚朴, 蘇子를 加하여 溫肺定喘한다. 表虛有汗者는 마땅히 桂枝, 芍藥을 爲 主로 하고 다시 水炙 或 蜜炙한 麻黃을 使用한다. (或者는 麻黃을 使用하지 않는다.)

(2) 新病에 咳하여 不暢하고 痰이 稀薄하면서 難咯出하는 境遇에는 乾薑, 細辛을 加하고 五味子, 芍藥을 輕減한다. 久病에 기침이 오래되고 肺가 虛한 者는 乾薑, 細辛을 가볍게 쓰고 芍藥, 五味子를 加한다.

(3) 肺가 寒하고 欬이 重하여 背部가 甚하게 冷함이 마치 掌大와 같은 者는 乾薑을 加하고 기침이 甚하고 얼굴이 붉으며 舌苔가 黃色이고 痰이 끈적하고 진하며 얼굴 색이 누런 색으로 變한 者는 邪氣가 內에서 熱로 化한 것이므로 마땅히 乾薑, 細辛에 石膏, 黃芩, 前胡 등의 清熱한 藥을 더하여 쓴다.

(4) 저녁때 咳喘이 자주 發生하면 마땅히 鹽水에 볶은 知母, 黃柏을 쓴다. 五更에 咳喘이 자주 나타나면 黛蛤散, 桑葉, 菊花를 加하여 寒溫을 併用하면 標本의 治法을 兼하므로 寒으로 外를 따라서 풀어지게 하며, 火는 內에서 平함을 얻는다. 大便이 秘結한 者는 郁李仁, 火麻仁, 瓜蒌仁을 적절히 섞어 쓴다.

(5) 頑痰과 咳喘이 오래 되어도 낫지 않는 者는 白附子를 加한다. 久病에 痰이 盛하여 慢性인 者는 茯苓, 白朮을 加하여 健脾利水한다. 아울러 細末하여 散으로 만들어 併用하면 久病을 緩慢히 다스리게 된다.

(6) 陽이 虛한 者는 麻黃을 빼고 灼附子, 杏仁을 加한다. 陰虛한 者는 桂枝의 辛溫을 빼고 天冬, 麥冬, 百部の 清潤함을 더한다. 또한 본래 體質이 陰津이 不足한 사람은 寒에 잘 感하는데 이 때 辛溫利水하는 藥을 服用하면 津液이 傷함을 받아 口渴하게 되므로 辛溫燥烈한 半夏를 빼고 甘寒生津한

天花粉을 加하여 服用한다.

(7) 水寒이 中焦에서 閉하여 水邪가 津液이 行하는 것을 막고, 下焦의 陽氣가 津液을 蒸騰하여 上으로 升하지 못하여 口渴하는 者는 半夏를 去하고 天花粉을 加하면 能히 一時의 急함을 救하고, 다시 桂枝를 去하고 肉桂를 쓰면 益火生津, 化氣利水하게 되는데, 이처럼 天花粉이 그 標를, 肉桂가 그 本을 다스리게 되어 緩과 急을 서로 救濟하게 된다.

(8) 慢性으로 氣管支炎과 氣管支가 哮喘하고 老年에 肺氣腫 등은 外寒內飲에 屬한 것이니 發熱惡寒이 없는 外感症狀과 같다. 或은 外寒이 이미 풀어졌으나 咳喘이 除去되지 않은 者는 마땅히 灸麻黃, 桂枝를 減한다. 發熱 惡寒 自汗하는 者는 마땅히 桂, 芍으로 主로 하고 麻黃을 除去하며 姜, 棗를 加한다. 寒熱이 輕微하고 表實이 甚하지 않은 者는 또한 마땅히 麻黃을 減하거나 豆豉로 麻黃을 代身하고 蘇葉으로 桂枝를 代身한다. 假令 內飲이 좀 重하고 咳喘, 痰이 몹고 가슴이 支滿하고 喘息으로 늡지 못하고 苔가 매끄럽고 燥하지 않는 者는 마땅히 薑, 辛, 五味子, 半夏를 重用한다. 寒이 肺底로 들어가서 邪가 熱을 따라 化하여 煩燥, 口渴, 舌苔黃色粘膩한 者는 마땅히 細辛, 乾薑을 減하고 生石膏, 桑白皮를 加한다.

#### 6) 注意事項

(1) 臨床活用時證 藥量이 過大하지 않아야 한다. 가령 發表함이 主된 治療法일 때는 藥量을 마땅히 가볍게 하고, 溫裏行水를 爲 主로 할 때는 藥量을 크게 해야 한다.

(2) 麻黃, 桂枝, 五味子, 細辛과 같은 것은 高血壓의 經驗이 있고 動脈硬化, 心動過速하는 者에게는 마땅히 使用하지 말거나 或 炙麻黃을 小量써야 하는데, 但 이때에는 肉桂를 加하여야 한다. 桂枝를 使用하여 解表發汗할 때의 量은 輕하게 하는데 (約2-3g가량) 만약 鎮痛, 溫痛하려면 用量을 크게 한다(6-9g). 細辛은 表寒을 透散할 때는 藥量을 조금 많게 하고 鎮痛, 溫痛에 使用할 때는 普通으로 加한다. 五味子の 用量은 過大하지 않게하고 萬若에 喘하며 胃汗하면 分量을 조금 많게 한다.

(3) 臨床經驗에 依하면 本 方은 久用하지 말고

17. 雜病의 腹脹水腫證에 使用하여 發汗하므로써 利水한다. (《醫宗金鑑》)

단지 喘急의 때에 잠시 使用해야 한다. 일단 病情이 緩解하면 苓桂諸類로 바뀌 使用하여 溫化寒飲 하여야 한다.

(4) 本方은 寒飲咳喘을 主治하지만 그 藥味가 辛烈走穿하여 모두 伐陰動陽의 弊가 있으므로 使用함에 삼가지 않으면 恒常 問題가 發生할 수 있어서 反對로 病情을 加重한다. 때문에 반드시 그 辨證要點을 把握해야 한다.

(4-1) 辨氣色 : 本方證은 水寒이 肺를 射하거나 或은 寒飲이 內伏한 것이다. 寒飲은 陰邪로 쉽게 陽氣를 傷하므로 心胸의 陽이 不溫하고 營衛의 行이 澁하게 되어 能히 面에 上榮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局部的으로 藜黑之色이 나타나고 或은 두는 周圍에 黑色의 띠가 나타나서 相互 對稱되고 或은 患者의 頭額, 鼻柱, 兩額, 턱아래의 皮裏內外에 黑斑이 나타난다.

(4-2) 辨脈 : 本方證은 弦脈이 많이 나타나고 或 脈浮緊하면 表寒裏飲이 모두 實한 證으로 만일 寒飲內伏이 오래되어 沈脈을 보이면 역시 水病이고 무릇 尺脈이 遲하고 或은 尺脈이 微하고 或은 兩寸脈이 柔弱하고 無力하면 이것은 心身이 먼저 虛하고 營氣가 不足하고 血少한 까닭이다. 이 때에는 本方을 濫用하여 虛人을 發汗하지 말아야 한다.

(4-3) 辨舌 : 本方證은 水飲이 凝滯不化하므로 舌苔는 대부분 水滑하다. 舌質은 一般的으로 變化가 적고 만일 舌色이 淡膩하면 陽氣가 受損하므로 本方을 使用할 때 반드시 加減하여 使用한다.

(4-4) 辨痰涎 : 本方證에서의 咳嗽多痰은 痰咯較爽하여 痰涎이 淸稀하고 不調하여 形이 泡沫과 같고 땅에 뱄으면 금방 水로 化하는 것을 말한다. 咯出한 痰이 깨끗하며 形態가 달걀 흰자와 같고 그 淸함이 涼粉과 같으며 口舌이 서늘함을 느끼는 것은 寒凝津聚한 것이다.

7) 臨床報告

(1) 外寒內飲喘咳

證狀 : 여름철 沐浴 後 咳嗽가 發生하여 治療를 하였으나 效果가 없었다. 寒을 만나면 더욱 甚해짐.

辨證 : 心下有水氣

治療 : 小青龍湯으로 主治해야 한다. 淨麻黃 4.5g, 川桂枝 4.5g, 乾薑 4.5g, 半夏 9g, 兆細辛 4.5g, 五味子 4.5g, 大白芍 6g, 生甘草 3g을 服用케 했다. 服用後 咳는 除去되었으나 微細한 喘이 있어 三拗湯의 輕劑를 服用시켰다. 淨麻黃1.8g, 光杏仁9g, 甘草2.4g으로 處方하였다<sup>18)</sup>.

(2) 哮喘

性別 및 年齡 : 女, 40勢.

證狀 : 咳嗽가 있는 지는 7個月, 哮喘이 發作된 지는 3個月이 되었는데, 보름전 부터는 더욱 甚하여 졌다. 처음에는 感冒後에 咳嗽가 反復되었는데, 이것이 낫지 않고 喘息이되어 不得臥까지 되었다. 抗生劑 等の 洋藥을 먹었으나 效果가 없었고, 小青龍湯으로도 效果가 없었다.

辨證 : 外感, 風寒이 肺를 襲擊하여 咳喘에 이른 것으로 보고, 惡風, 咳喘하고 汗이 밤에 더욱 甚하게 나오며 많은 거품, 묽은 痰과 筯가 薄滑하고 舌邊에 齒齦이 있어 寒飲으로 斷定하였다.

治療 : 麻黃根 30g, 白芍 18g, 桂枝 9g, 甘草 6g, 炮薑 6g, 五味子 9g, 細辛 6g, 半夏 12g을 二劑服用 한 後 喘息이 平定되었다<sup>19)</sup>.

(3) 百日咳

性別 및 年齡 : 女, 7歲.

證狀 : 極熱하게 陣咳가 있어서 수십 번이나 소리가 連續하여 끊이지 않고 咳嗽時에는 얼굴이 靑紫色이 되기까지 이르고, 腰背가 彎曲되고, 콧물과 눈물이 흐르고, 粘痰을 吐出하고서 必야호로 平息하였다. 1, 2時間이 지나면 다시 기침 소리가 일어나 發作을 反復하기를 밤낮으로 10-20次例하기를 몇 달이 되었다. 수차례 洋藥을 服用하였으나 效果가 없었다. 眼瞼에 浮腫이 있고 食慾不進하며 甚하면 咳嗽하며 吐했다. 舌이 白色이고 喉가 마르고 脈이 緊滑하였다.

治療 : 小青龍湯을 服用시켰다. 麻黃 1.5g 桂枝 2.4g 細辛 1.5g 五味子2.1g 半夏 3g 白部 3g으로 7劑를 服用한 後 完治되었다<sup>20)</sup>.

(4) 久咳浮腫

18) <經驗實驗錄>

19) <經方應用> 寧夏人民出版社, 1981年版

20) <福建中醫藥>1965:5:38

性別 및 年齡 : 男, 32歲.

證狀 : 痰飲咳嗽을 앓은지 이미 多年되었다. 全身이 浮腫하고 腹이 복처럼 脹滿하고, 氣喘하여 不能臥하며, 飲食이 減少하였으나 大小便은 正常이었다. 舌苔白하고 脈은 浮, 弦, 滑하였다.

辨證 : 脾腎의 陽이 衰하여 陰寒이 內入하고 水飲이 肺를 侵犯하여 清肅作用이 失調하여 水濕 泛濫으로 肌部에 넘친 것이다.

治療 : 小青龍湯을 加味하여 服用시켰다. 麻黃 2.4g, 肉桂 0.5g, 炒白芍 9g, 細辛 2.1g, 半夏 9g, 五味子 6g, 乾薑 6g, 茯苓 9g, 豬苓 6g, 澤瀉 9g, 附子 0.9g, 款冬 6g, 白朮 3g으로 30餘貼를 服用한 後에 以前의 健康을 恢復하였다<sup>21)</sup>.

#### 4. 麻黃杏仁甘草石膏湯

##### 1) 該當條文

63. 發汗後, 不可更行桂枝湯, 汗出而喘, 無大熱者, 可與麻黃杏仁甘草石膏湯

167. 下後, 不可更行桂枝湯, 若汗出而喘, 無大熱者, 可與麻黃杏仁甘草石膏湯

##### 2) 類方鑑別

##### (1) 大清龍湯과 鑑別

共通點 : 外寒裏熱에 使用한다.

麻杏甘草湯 : 表寒가 輕하고 裏熱이 重하여 頭痛, 發熱, 有汗, 不惡寒, 咳嗽, 氣促, 煩渴小便赤澀 大便秘結하고 痰黃稠濁粘하여 難咯出하는 데에 石膏를 重用하여 辛涼을 爲主로 清宣肺熱한다.

大清龍湯 : 表寒이 裏熱보다 盛하여 壯熱, 惡寒이 兼하고, 煩躁鬱怒, 手足不安, 肌部가 또한 燥하고 無汗하며 氣粗하고 痰色白하는 데에 麻黃을 重用하여 辛溫을 爲主로 解表한다.

##### 4) 臨床應用

現代 臨床에서 本方은 大多數 呼吸氣系統의 急性病에 利用되는데 例를 들면 感冒, 流行性感冒, 肺炎, 急性氣管支炎, 慢性氣管支炎急性發作<sup>22)</sup>, 大葉性肺炎, 氣管支肺炎, 哮喘<sup>23)</sup>, 麻疹合肺炎, 風火로 因한 急性咽喉炎 等에 發熱, 咳嗽, 鼻翼動, 有汗, 無汗, 口渴煩躁, 脈象滑數, 舌苔薄白或黃 等이 나 타날 때 本方을 適切히 加減하여 使用할 수 있

다.

##### 5) 臨證加減法

(1) 陰瘡에 蟬衣를 加한다.

(2) 爛喉痧에 馬勃, 桔梗을 加한다.

(3) 小兒肺炎, 小兒麻疹合肺炎에는 蒲公英 雙花 魚腥草 等을 加하여 敗毒消炎作用을 增加시킨다. 萬若 小兒麻疹에 高熱과 喘症이 續發할 때는 羚羊角을 加하며 熱痰이 盛하면 黛蛤散을 合하고 葶藶子, 炙桑皮等의 清邪肺熱하는 藥物을 加하고, 만일 大便이 燥結하고 腑氣不利하고 喘而腹滿者는 牽牛, 大黃을 加하여 瀉下시킨다. 麻毒이 內陷하고 肺熱이 熾盛한 境遇은 大青葉 連翹 黃芩 等의 清肺熱藥을 加한다.

(4) 氣管支哮喘에는 白果, 前胡, 藜子, 厚朴 等의 理氣平喘한 藥을 加한다.

(5) 肺炎, 氣管支炎, 上呼吸道感染에는 清熱解毒藥과 化痰하는 藥을 加한다.

(6) 蕁麻疹은 外感風熱이나 風寒이 侵襲한 所致로 麻疹의 形態를 分別하여 加減하는데 熱型에는 石膏를 쓰고 寒型에는 麻黃을 쓴다. 가려움이 甚하면 蟬蛻와 白鮮皮를 加하고 血虛에는 當歸와 丹參을 加하며, 挾濕에는 薏米 蒼朮을 加하고, 挾食에는 焦查나 三仙을 加하고 寒이 盛하면 附子와 桂枝를 加한다.

##### 6) 衍方

(1) 越婢加朮湯 : 本方에서 杏仁을 去하고 生薑, 白朮, 大棗를 加한 것으로 風水, 眼臉浮腫, 四肢及全身皆腫, 肢體酸重, 小便不利, 兼有惡寒發熱, 脈浮滑數 或 脈沈之症을 治療한다. (《金匱要略》) 現代臨床에서는 急性腎炎, 慢性腎炎 或은 隱匿性腎炎의 急性發作에 使用한다.

(2) 越婢加半夏湯 : 本方에서 杏仁을 去하고 生

22. 本方에 地龍 夜交藤 半夏 葶藶子 藜蘆을 加하여 氣管支炎 172例를 治療하였는데 34例가 漸次 好轉되었으며(19.8%), 62例가 效果가 顯著했으며(36%), 63例가 好轉되었으며(36.7%), 9例가 效果가 없었다(5.2%). 喘息型 및 熱燄型이 治療 效果가 比較的 좋았다. <天津醫學> 1975 ; 12 : 626

23. 哮喘, 胸中如火, 氣逆涎潮, 太息呻吟, 聲如屑鋸, 鼻流清涕, 心下痞硬塞한 者는 이 處方을 쓴다. (《類聚方廣義》)

21) <福建中醫藥>1965:5:38

薑, 大棗, 半夏를 加한 것으로 風熱外感, 水飲內停 咳嗽檢査와 X線 檢査結果는 右側肺炎으로 診斷되  
으로 內外合邪되어 肺氣脹滿되어 咳嗽喘息이 있 었다.

3) 基本病理

-中略(表參考)-

主症：汗出而喘，無大熱，口渴，咳嗽，氣喘，痰粘色黃，舌尖紅，苔薄白而乾 或薄黃，脈浮數，或滑數。  
副症：惡風，頭痛，鼻塞，胸脇疼痛，煩躁，或無汗。



脈證	備	考	病 理
汗出而喘 無大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發汗後喘當作桂枝加厚朴杏仁湯汗出即喘愈今汗出而喘邪氣擁塞…汗出而喘有大熱者內熱氣甚也無大熱者…表邪必甚也…「成無己」</li> <li>● 汗出而喘無大熱者其邪不在肌表而入肺中緣邪氣外閉之時肺中已自蘊熱「尤在涇」</li> <li>● …不當用桂枝桂枝寒不得泄而氣轉上逆所以喘亦甚也無大熱者鬱伏而不顯見也以傷寒之表猶在…「方中行」</li> <li>● 今太陽病發汗後汗出而喘身無大熱而不惡寒者邪已不在太陽之表且汗出而不惡熱知邪亦不在陽明之裏其所以汗出而喘既無大熱不惡寒是邪獨在太陰肺經「醫金」</li> <li>● 汗出而喘者陽盛於內火氣外越而汗出火氣上越而喘也「眞元犀」</li> </ul>

고, 脈浮大有力한 者를 治療한다. (<金匱要略>)

(3) 五虎湯：本 方에 細茶를 加한 것으로, 寒邪가 客于肺俞하여 寒化爲熱· 肺經閉塞하여 胸高促, 肺脹滿, 兩脅扇動, 陷下作坑, 鼻竅扇張, 神氣悶亂 等の 證狀이 된 것을 治療한다. (<幼科發擇>)

(4) 四物甘草湯：卽 本 方이다. 傷寒汗出而喘無大熱한 것을 治療하는데, 賊風所中하여 腹中擊急한 것을 治할 때는 本 方에서 杏仁을 去하고, 鬼箭羽를 加한다. (<千金方>)

(5) 惺惺散：卽 本 方에서 杏仁을 去하고 茶, 葱을 加한 것으로 傷寒發熱頭痛을 治療한다.

7) 臨床報告

(1) 肺炎

性別 및 年齡：男, 50歲.

證狀：發熱迫風, 汗少胸悶, 納少, 大便不暢을 呼訴하고, 가벼운 기침에 痰이 섞여 나온다고 함. 舌紅, 苔白膩, 脈浮數하였다. 體溫은 39.5℃였으며

辨證：이것은 風溫濕蔽(肺熱之候 邪在衛氣) 한 것이다.

治療：麻黃 4.5g, 生石膏 30g, 杏仁 9g, 甘草 3g, 桑葉 9g, 葛根 6g, 黃芩 4.5g, 黃連 3g으로 2貼을 服用한 後 體溫이 37.3℃로 내려갔고, 모든 症狀이 減少하였다<sup>24)</sup>.

(2) 小灶性肺炎

性別 및 年齡：女, 3歲.

證狀：때때로 기침을 하고, 가래를 뱉어도爽快하지 않고, 呼吸이 빠르면서 甚하면 鼻翼이 煽動하였다. 아직 熱이 있고, 汗出이 있어도 熱이 除去되지 않고, 기침은 더욱 極烈하며 消化狀態역시 좋지 않고 痰涎을 자주 嘔吐하였다. 舌苔는 薄白하고 脈은 浮滑하였으며, 體溫은 38.1℃, 脈搏은 158回/分, 呼吸은 60回/分이었다.

辨證：風熱이 肺를 侵犯하여 肺가 肅降作用을

24, <上海中醫藥雜誌> 1963 ; 2 : 4

喪失한 것이다.

治療 : 마땅히 疎解淸肺, 化痰定喘해야 한다. 水炙麻黃 6g 杏仁 9g 生石膏 30g 甘草 3g 炙蘇子 9g 葶藶子 9g 薑汁半夏 9g 貝母 9g 遠志 3g으로 消咳解淸肺祛痰定喘한 後에 諸症狀이 輕減되었다. 세런제 診斷時에 기침은 거의 없고 呼吸은 正常的이고 消化 또한 잘 되며 舌苔薄白하고 脈滑數하였다. 그러나 가래는 아직 없어지지 않았다. 이에 原方에서 遠志를 去하고 麻黃을 1.5g으로 줄이고 陳皮 3g, 紫宛 4.5g을 加하여 繼續하여 3劑를 服用한 後 모든 症狀이 消失되었다<sup>25)</sup>.

(3) 麻疹合病肺炎

性別 및 年齡 : 男, 7歲.

證狀 : 高熱로 41℃였으며, 때때로 筋肉痙攣, 眼上視 等の 證狀이 나타나며 昏睡 狀態가 되고, 咳嗽, 呼吸促迫, 鼻翼煽動, 數日不便, 胸高腹脹, 舌紅苔黃, 口脣乾燥, 脈浮弦數하였다. 麻疹은 크게 發하지 않았다.

辨證 : 麻疹이 肺를 侵犯하고 다시 心包에 傳한 所致이다.

治療 : 上焦를 淸하게 하여 泄下시킨다. 먼저 紫雪丹一劑를 服用한 後에 麻杏石甘湯加水牛角, 金門, 玄明分, 黃芩, 銀花, 天葵를 煎湯하여 服用시켰다. 2時間後 熱이 없어지고 大便이 正常이 되었고 體溫이 38℃로 되었다. 다음날은 麻疹이 皮膚面으로 表出되어 全身에 腫氣를 形成하였다. 後에 9日間 더 있는 뒤 完快되어 退院하였다<sup>26)</sup>.

(4) 百日咳

性別 및 年齡 : 男, 13歲.

證狀 : 陳發性 痙攣性 咳嗽가 17日間 持續되며 發病時 漸次的으로 熱이 나고 기침이 갈수록 甚해졌다. 낮에는 減少되고 밤에는 더욱 甚하였다. 粘液을 吐하고, 때때로 衄血이 있고, 顔面은 暗色을 띠며 浮腫이 있었다.

辨證 : 百日咳의 痙攣期로 判定.

治療 : 加味麻杏石甘湯을 엑기스로 날마다 16cc를 4回 服用한 後 效果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 3日째 되는날 分量을 크게하여 날마다 24cc씩

4回로 나누어 服用한 後에는 效果가 顯著히 나타났으며 9日째 되는날 證狀이 完全히 消失되었다. 使用된 總藥量은 200cc였다<sup>27)</sup>.

(5) 鼻淵

性別 및 年齡 : 男, 30歲.

證狀 : 鼻塞이 있는지 3年이 되었는데, 濁涕가 喉中으로 넘어가는 證狀이 있었다. 以外에 頭痛, 頭昏, 腦脹과 右寸脈의 浮數等の 證狀이 있어 鼻孔을 檢査하니 充血되었고, 膿性의 分泌物이 있었으며 코 周圍에 壓痛이 있었다.

辨證 : 肺熱이 腦로 傳達되어 腦漏鼻淵의 證狀이 된 것이다.

治療 : 麻杏石甘湯에 乾地黃을 加하여 繼續하여 7劑를 服用한 後 治愈되었다<sup>28)</sup>.

(6) 癩疹

證狀 : 麻疹을 앓은지 이미 多年이 되었으며, 時輕時重하였다. 全身에 가려움증이 있었다. 많은 治療를 받았으나 效果를 얻지 못했다.

治療 : 麻黃, 杏仁, 蠶沙 各 9g, 生石膏, 地膚子 各 12g, 全蝎, 生甘草 3g으로 10劑를 服用한 後 治愈되었다<sup>29)</sup>.

(7) 過敏性哮喘

性別 및 年齡 : 女, 28歲.

證狀 : 鼻炎으로 因하여 過敏性哮喘이 된지 8年이 되었다. 특히 가을 겨울에는 甚하게 나타났다. 近來에 風寒에 感하여 身熱, 汗出, 鼻塞, 咳嗽氣喘, 胸膈煩悶, 口脣發紺, 便秘, 口苦而渴, 舌苔薄黃, 脈浮數하였다.

辨證 : 風寒이 表에 있어 肺에 熱이 鬱滯되어 肅降作用을 喪失한 것이다.

治法 : 治法은 마땅히 泄熱하고, 降氣平喘해야 한다. 麻黃 3g 生甘草 3g 生石膏 15g 苦杏仁, 桑白皮 瓜蒌皮 蘇子 各9g 生大赫石 30g으로 3劑를 服用시킨 後에 喘息이 가라앉았다. 繼續 服用하여 이러한 證狀들이 輕減되었다. 以後에 再發하였으나 다시 이 處方을 服用하여 治愈되었다<sup>30)</sup>.

26. <新中醫> 1974 ; 1 : 31

27. <江西中醫藥> 1960 ; 10 : 25

28. <福建中醫藥> 1965 ; 2

29. <新醫藥雜誌> 1978 ; 7 : 24

25. <醫案選編> 上海人民出版社, 1977年版

(8) 小兒遺尿

性別 및 年齡 : 男, 8歲.

證狀 : 患者는 4年동안 夜間에 遺尿證狀이 있었으며 밤마다 반드시 1-2回 排尿가 있었다. 恒常 咳嗽, 口渴症이 있었다. 大便은 正常이며 小便은 약간 黃色이었다. 舌苔는 黃色에 약간 白色을 띠고 脈은 數하고 右側脈이 顯著히 大하였다.

辨證 : 肺熱鬱結로 因하여 肺氣宣降失常하여 腎水不攝하므로 膀胱이 閉闔을 失司한 것이다.

治療 : 宜肺清熱시켜야 한다. 麻黃 6g, 杏仁 9g, 生石膏 18g, 甘草 3g을 水煎하여 2劑 服用한 後 자기전에 遺尿證狀이 없고, 消化狀態가 좋아졌으나 그 밖의 證狀은 以前과 同一하였다. 다시 本方에 山藥 6g 穀芽 6g을 더 넣어 2劑 더 服用한 後 밤에 遺尿證狀이 없었고 咳嗽, 口渴證狀은 減少되었으며 飲食量은 增加하고 大小便은 正常的으로 되었으며, 右側脈의 大象이 없어졌다. 本來의 處方을 繼續 2劑 服用하여 肺의 나머지 熱을 없앴다<sup>31)</sup>.

5. 麻黃連翹赤小豆湯

1) 該當條文

263. 傷寒瘀熱在裏 身必黃 麻黃連翹赤小豆湯主之

2) 類方鑑別

(1) 本方은 大靑龍湯에서 桂枝를 去하고, 連翹를 使用하며 石膏대신 梓白皮를 加하여 清熱하며 赤小豆를 加하여 利水邪한다. 《傷寒論》에서는 大靑龍湯은 發汗清熱의 峻劑이며 桂枝二越婢一湯은 發汗清熱의 輕劑가 되고 本方은 發汗清熱利濕의 平劑라고 하여 三方을 區別하였다.

(2) 茵陳蒿湯과 梔子白皮湯과 區別.

類別 方別	病因病機	主要脈證	治法
麻黃連翹赤小豆湯	寒邪束表 濕熱內蘊 (偏結于表)	惡寒發熱, 無汗煩躁, 身日俱黃, 脈浮弦	解表清熱 利濕消黃
茵陳蒿湯	濕熱黃疸 (偏結于裏)	一身面目俱黃, 色鮮, 腹微滿, 口中渴, 但頭汗出, 小便不利, 脈沈實	清利濕熱
梔子柏皮湯	濕熱內滯 (鬱阻三焦)	身日俱黃, 小便黃赤, 發熱, 苔黃, 脈數	清熱泄濕

4) 臨床應用

現代臨床에서는 本方을 “傷寒瘀血在裏, 身必發黃”뿐만 아니라 發黃하지 않는 境遇에도 使用하는데 外로 表證이 있고 內로 濕熱이 있는 者는 두루 利用할 수 있다. 例를 들어 風寒이 外解되지 않고 內陷하고 濕熱이 內聚되거나 瘡毒으로 因하여 浮腫 喘滿 尿少 濕瘡 發黃하는 等에 利用<sup>32)</sup>할 수 있고, 傳染性 肝炎 初期者, 慢性腎炎, 過敏性紫斑이 腎炎과 併合하였을 때 或은 原因 不明의 眼瞼疾患이나 面部에 血管神經性 浮腫이 있을 때, 蕁麻疹 等의 症狀이 있을 때 使用할 수 있다.

5) 臨證加減法

(1) 風水表虛 或 表實이 輕한 急性腎炎 或 慢性腎炎에 五皮飲 防己黃芪湯 玉屏風散 或 五苓散等을 合하여 使用한다.

(2) 麻疹 或 面部 眼瞼等에 原因 不明의 血管神經性水腫에는 白癩皮 土茯苓 蛇麻子 地膚子 等의 去風勝濕之劑를 加한다.

(3) 玫瑰糠疹 : 偏風이 重한 者는 刺猥皮, 豨薟草, 蕪蛇, 甘草를 加하고, 偏熱이 重한 者는 丹皮,

31. <新醫藥雜誌> 1977 ; 11 : 31

32. 疥癬이 內陷하여 一身에 瘙癢症狀이 있으며 咳嗽, 腫滿하는 者는 反鼻를 加하면 奇效가 있다. (<類聚方廣義>)

30. <浙江中醫藥> 1979 ; 8 : 301

銀花, 梔子, 紫草, 甘草를 加하고, 偏濕이 重한 者 治療: 麻黃 連翹 桑白皮 赤小豆 杏仁 茵陳 炒

3) 基本病理

-中略(表參考)-

主證: 發熱, 惡寒, 無汗, 心煩, 或疹作痒, 或身目俱黃, 小便黃, 短少不利, 苔白或薄黃, 脈浮.  
副證: 或汗出不徹, 或腫.



脈 證	病 理
瘀熱發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傷寒之邪得濕而不行所以熱瘀身中而發黃…「喻嘉言」</li> <li>● 傷寒表邪未解適遇其人陽明所有濕邪熱入裏而如混合濕熱蒸瘀外搏肌表身必發黃「尤在涇」</li> <li>● …言傷寒鬱熱與胃中之濕氣互結濕蒸如桴澤中之瘀泥…蓋濕熱膠固壅積于胃故曰瘀熱在裏身必發黃「錢天來」</li> <li>● 凡傷寒瘀血在裏者由濕蒸以來故身必發黃「程郊倩」</li> <li>● 熱反入裏不得外越謂之瘀熱非發汗以逐其邪濕氣不散「柯韻伯」</li> <li>● 凡所有濕熱之人一感外邪兩相挾之則在外之邪不散而在裏之熱轉蒸故內熱不能越而為汗外熱不得入而為實因瘀為黃「周禹載」</li> <li>● …若熱入肌肉令氣血相蒸則污滯不行時名瘀熱氣瘀則為水血瘀則為火水火蒸發於肌肉中現出土之本色是以發黃「唐容川」</li> </ul>

는 薏米, 蒼朮, 土茯苓, 茵陳, 蟬衣, 甘草를 加하고, 血虧한 者는 當歸, 白芍, 熟地, 白茯苓, 白朮, 甘草를 加한다.

(4) 肺氣의 宣肅作用의 失調로 風水에 이른 境遇로 急性腎炎 蛋白尿等에는 麻黃의 量을 줄이고 蘇葉 防風 羌活等을 加하여 肺氣를 宣升시킨다.

(5) 蕁麻疹에는 本方에 僵蠶를 加하여 清熱去風시킨다.

6) 臨床例

(1) 急性黃疸肝炎

性別 및 年齡: 女, 48歲.

證狀: 熱이 있는지 4日이 되었고 惡寒, 口渴而不欲飲, 小便黃赤, 大便乾結, 泛泛欲吐, 右脇作痛等이 있으며 새벽에 이르러 面目發黃하면서 苔白膩, 脈弦數而浮하였다.

辨證: 表未解하고 內로 濕熱이 있는 所致로 判定.

山梔子 生薑 大棗의 處方을 4劑 服用한 後 表邪는 除去되었으나 濕熱이 除去되지 않아 茵陳蒿湯으로 轉方하여 投與하였는데, 服藥 一週日 後에 黃疸이 사라지고 諸症이 消滅되었다<sup>33)</sup>.

(2) 蕁麻疹

性別 및 年齡: 男, 32歲.

證狀: 全身에 風疹瘙痒이 있어 蕁麻疹으로 診斷받았다. 每 發作時 10餘日 持續되었고 이때 疹塊를 形成하고 特히 胸腹部에 疹塊瘙痒이 甚하며 焮紅灼熱感이 있었다. 또한 風을 만나면 이러한 症狀이 甚해지며 舌質은 焦紅하고 舌苔는 薄白하고 脈은 弦略數하였다.

辨證: 風熱이 肌表에 內蘊한 所致이다.

治療: 麻黃 生甘草 連翹 金銀花 紅小豆 細生地로 一劑를 服用한 後 蕁麻疹 發作이 더욱 甚하였으나 連續하여 二劑를 投與하니 점차 蕁麻疹이

33. <中醫內科學> 上海中醫學院



消失되고 3劑를 連續 投與한 後 諸症이 消失되었다<sup>34)</sup>.

(3) 濕疹

性別 및 年齡 : 女, 34歲.

證狀 : 皮膚에 小疹과 瘙癢이 있는 지 10日이 되어 臀部와 兩腿 上端에, 丘疹과 血痂가 퍼져있고 特히 兩腿 外側이 甚했다. 瘙癢感이 夜間에는 더욱 甚하고 손으로 긁으면 血水가 흐르며 灼熱感이 있었다. 舌苔는 薄黃하며 脈은 細弦하였다.

辨證 : 心脾血虧와 風濕鬱熱의 所致로 判定

治療 : 麻黃 生甘草 連翹 當歸身 細生地 赤小豆의 處方을 連續으로 5劑 投與한 後 濕疹이 半으로 줄고 瘙癢이 大減했다. 다시 連續 原方을 5劑 服用 한 後 治愈되었다<sup>35)</sup>.

(4) 水痘

性別 및 年齡 : 女, 3歲.

證狀 : 初期에 鼻流涕, 咳嗽微熱, 不思飲食의 症狀이 나타나고, 하루전 面部에 發疹等의 小紅疹이 나타났다. 새벽에는 胸腹部 四肢 모두에 크고 작은 小水泡가 나타나며, 水泡 周圍에는 약간 紅色을 띄었다. 小便是 淡黃하고 指紋色은 紅而浮하며 舌質은 紅潤하며 舌苔는 薄白하였다.

辨證 : 肺熱瘟毒 外感時邪의 所致로 判定.

治療 : 麻黃連翹赤小豆湯을 加減하여 麻黃 甘草 杏仁 連翹 金銀花 赤小豆의 處方으로 3劑를 服用한 後에 發熱咳嗽가 減少되었고, 皮膚의 水泡가 사라졌다. 다시 原方에서 麻黃을 去하고 牽牛子를 加하여 2劑를 服用한 後 治愈되었다<sup>36)</sup>.

(5) 濕毒, 腰痛(濕熱內陷, 慢性腎炎)

性別 및 年齡 : 男, 45歲.

證狀 : 慢性 腎炎 患者로 몇 年前부터 下肢 特히 鼠蹊部에 濕疹과 瘙癢이 甚했고 이러한 症狀이 時出 時沒하였다. 濕疹과 瘙癢이 사라질 때는 腰部가 重한 感이 있고 약간의 痛症이 있었다.

辨證 : 濕熱之毒이 內陷하여 腎臟病을 일으킨 所致이다.

治療 : 黃連翹赤小豆湯으로 治療하였다. 麻黃 桑白皮 連翹 赤小豆 杏仁 甘草 生薑 大棗의 處方

으로 4劑를 服用하였으나 汗出이 없어 다시 麻黃을 9g 까지 增量하여 投與한 後에 약간의 汗出이 있었다. 이것을 10劑까지 服用케 한 後에 濕疹은 出하고 落屑하였으나 鼠蹊部位는 濕疹이 出하지 않았다. 小便이 淸하며 汗出이 쉽게 일어나고 舌의 中心部位만 黃色을 띄어 다시 人蔘敗毒散으로 바꾸어 服用한 後 治愈되었다<sup>37)</sup>.

6. 麻黃細辛附子湯

1) 該當條文

301. 少陰病 始得之 反發熱 脈沈者 麻黃附子細辛湯主之

2) 類方鑑別

類別 方名	病因病機	主要脈證	治療 原則	共通點	處方 構成
麻黃細辛 附子湯	太陽風寒外束, 少陰陽氣內餒 表實裏虛 少陰 直中傷寒兼表	惡寒, 發熱, 無汗, 脈反沈	解表 溫陽	屬太陽	麻黃 附子 細辛
桂枝加附 子湯	太陽惡寒亡陽, 陰亦受損,表裏 俱虛 太陽中風 誤汗傷及少陰	汗瀉不止 其人惡風, 小便難, 四肢微急 難以屈伸	扶陽 固表, 調和 營衛	與少陰 同病	桂枝 湯加 附子

4) 臨床應用

現代臨床에서 本 方은 陽虛體質의 感冒, 陽虛 或은 衰弱小兒의 麻疹, 寒이 少陰에 入하여 나타나는 咳嗽, 老幼肺炎, 嗜眠, 月經期前後 或은 泄精 前後에 寒을 받은 境遇, 大寒이 腎의 腦를 犯한 境遇, 或은 齒痛 暴啞聲不出的 咽痛 寒이 少陰에 潛伏하여 皮下에 青色血斑이 있는 境遇, 産後水腫 腎病水腫, 陽虛寒癩하고 脈이 遲緩한 境遇 等에 運用하며 또한 慢性氣管支炎, 氣管支哮喘이 寒性에 屬한 境遇에 使用한다.

5) 臨床報告

(1) 太少兩感

35. <浙江中醫雜誌> 1966 ; 4 : 36

36. <浙江中醫雜誌> 1966 ; 4 : 36

37. <岳美中醫案集> 19項

34. <浙江中醫雜誌> 1966 ; 4 : 36

性別 및 年齡 : 男, 42歲.

을 投與하였다. 附片 100g 乾薑 36g 甘草 6g 麻黃

3) 基本 病理

-中略(表參考)-

主症 : 發熱, 惡寒, 無汗, 四肢不溫, 苔白, 脈沈弱.

副症 : 頭項強痛, 神疲乏力, 面色不華.



脈 證	病 理
發熱, 脈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少陰病當無熱惡寒反發熱者邪在表也雖脈沈以始得則邪氣未甚…「成無己」</li> <li>● …少陰之表即是太陽若始得病邪從表入合於太陽經而惡寒發熱無煩燥下利諸裏證者乃當從表以汗解之…「唐容川」</li> <li>● 此寒中少陰之經而復外達太陽之證以少陰與太陽爲表裏其氣相通故也少陰始得本無熱而外達太陽則反發熱陽明脈當浮而乃緊少陰則脈不浮而沈「尤在涇」</li> </ul>

證狀 : 腎氣가 본래 虧虛하고 風寒에 感冒되어 病이 되었다. 身熱惡寒, 頭疼體痛, 沈迷嗜臥하며 渴症이 있고 喜熱飲하나 多飲하지는 않았다. 脈은 沈細而緊하고 舌苔白滑하며 舌質은 靑紫色이었다.

辨證 : 腎氣素虧, 坎陽內弱하고 客邪에 抵抗할 到어 衛外固表作用이 無力해진 狀態에서 風寒이 虛한 틈을 타 少陰으로 直入하고 眞陽의 運行을 막아서 생긴 것이다.

治療 : 初診에 麻辛附子湯으로 溫經解表, 扶正除邪하였다. 黑附片 36g 麻黃 10g(先煮數沸, 去沫) 北細辛 6g 桂枝尖 13g을 服用한 後 汗出하고 身熱이 退했으나 오직 頭暈咳嗽와 神怯한 症狀이 남아 있었다. 再診하여 四逆湯에 二陳湯을 合方하고 細辛, 五味子를 加하여 扶陽溫寒시켰다. 一劑를 服用한 後 治愈되었다<sup>38)</sup>.

(2) 少陰頭痛

證狀 : 寒邪로 因해 發病한지 10餘日이 지나 頭痛이 참을수 없을 程度였다. 午後에는 惡寒體痛이 甚했고 脈弱無力하며 舌苔白滑하며 不渴飲하였다.

辨證 : 寒中少陰하여 清陽不升한데 正虛陽弱, 陰寒遏滯經脈한 所致이었다.

治療 : 輔正除邪之法으로 加味麻黃附子細辛湯

10g 細辛 5g 羌活 10g으로 一劑를 服用한 後 痛症이 半減하고 다시 服用한 後 治愈되었다<sup>39)</sup>.

(3) 嗜睡

性別 및 年齡 : 男, 21歲.

證狀 : 神倦嗜睡가 10餘日이 되어 頭暈頭脹, 精神不振하고 恒常 消沈感이 있었다. 매일 이른 아침에는 昏睡不起하고 불러도 쉽게 깨지 않았다. 어제는 잠이 들어 正午쯤에 겨우 깬고 더욱이 寢床에 遺尿를 하였다. 血壓은 110/80이고 脈象은 小緩, 舌質脾苔薄하였다.

辨證 : 陽虛不振한 것이다.

治療 : 麻黃附子細辛湯을 投與하였다. 麻黃3g 附子6g 細辛2g 炙甘草3g 仙鶴草30g으로 5劑를 服用한 後 이른 아침 잘 일어나고 前에 비해 頭腦가 爽快하며 낮에도 精神이 振作하였다<sup>40)</sup>.

(4) 瘀斑

證狀 : 下肢內側에 恒常 靑色血斑이 出現했는데 少年時에 此證을 앓았다고 呼訴하였다. 脈象은 沈弦하며 尺脈獨浮, 舌苔薄白帶潤하였다.

辨證 : 陽寒이 少陰에 伏한 것이다.

治療 : 本方을 2劑 連服한 後 瘀斑이 減退되었다<sup>41)</sup>.

38. <吳佩衡醫案>

39. <吳佩衡醫案>

40. <上海中醫藥雜誌> 1979 ; 6 : 37

41. <江蘇中醫> 1959 ; 2 : 12

(5) 黃疸

性別 및 年齡 : 男, 40歲.

證狀 : 黃疸을 앓아 深黃不退, 食物無味, 精神極差하며 但欲嗜臥, 舌苔淡白, 尖部薄潤, 脈沈하였다.

辨證 : 太陽之表에 寒濕이 阻滯된 것으로 發越치 못하고 陰邪가 少陰之裏에 內蘊하고 陽氣가 伏藏한 所致였다.

治療 : 本方 2劑를 服用한 後 小便이 暢行하고 胃欲振作하며 皮膚黃疸이 크게 消退되었다. 繼續해서 原方에 加減하며 服用한 後 目黃이 顯著히 減少하고 小便漸淸해지며 迅速히 治愈되었다<sup>42)</sup>.

(6) 三叉神經痛(風寒型)

性別 및 年齡 : 女, 40歲.

證狀 : 左側 三叉神經三支痛이 二年정도 되었다. 항상 小痛이 發하고 말할 때나 밥을 먹을 때 風冷邪를 받아 劇熱疼痛하고 氣短, 自汗, 眠差, 手足涼麻, 舌質淡, 邊有齒痕하고 左脈沈細, 右脈沈滑하였다.

治療 : 麻黃 附子 細辛 各 9g 防風 香附子 各 6g 當歸 桑寄生 各 12g 生牡蠣 川芎 膽草 各 15g으로 四劑를 服用한 後 말할 때나 飲食物을 씹을 때에만 약간의 痛症이 있었으며 自汗, 少寐症狀이 남아 있어 上方에 生芪 9g 糯稻根 30g 遠志 菖蒲 各 6g 夜交藤 15g을 加하여 繼續해서 15劑를 服用한 後 治愈되었다<sup>43)</sup>.

(7) 心動過緩

性別 및 年齡 : 女, 18歲.

證狀 : 心動이 40-45回/分 지나치게 느리고 뚜렷한 自覺症狀은 없으나 다만 運動을 하면 胸悶短氣하고 形寒易惡冷, 手足不溫, 苔薄白, 舌質淡하였다.

辨證 : 心陽不足하고 寒凝氣滯로 血澀한 所致이다.

治療 : 初診에 麻黃 5g 制附子 10g(先煎) 細辛 3g으로써 溫通心陽하였다. 3劑를 水煎服한 後 手足이 점차 溫해지고 心搏動이 55-60回로 增加하였다. 再診하여 上方에 制附子를 15g으로 하고 7劑

를 服用하였으나 明顯한 進退는 없었다. 三診하여 上方의 10倍量을 蜜丸하여 每個의 무게가 9g, 하루에 2-3丸, 40日 服用한 後 運動時에 胸悶感이 없어지고 四肢이 常人처럼 溫해지고 心搏動이 65-70回로 增加하였다.

7. 麻黃附子甘草湯

1) 該當條文

302. 少陰病 得之 二三日 麻黃附子甘草湯 微發汗 以二三日 無裏證故微發汗也

2) 類方鑑別

(1) 麻黃附子細辛湯과 鑑別

二方의 鑑別은 趙嗣眞의 說이 매우 잘 설명되어 있다. 그는 “少陰發汗 二證에 그 第一證은 附子로 溫經하고 麻黃으로 散寒하는데 熱은 攄으로 풀어지므로 細辛을 加하니 이는 寒劑中에서 重劑이다. 第二證은 病을 얻은 지 2-3日이 지났는데 病이 오히려 淺하여 前證에 비해 조금 가벼우므로 細辛을 甘草로 바꾸니 이는 寒劑中에서 輕劑이다.”라고 하였다. 二方은 모두 陽虛에 風寒을 感한 것이다.

麻黃附子細辛湯 : 解表散寒의 功이 비교적 強하였다. “始得之”하여 證勢가 조금 急할 때 溫經發汗함에 쓴다.

麻黃附子甘草湯 : 解表散寒의 功이 비교적 弱하였다. “得之二三日”에 證勢가 가볍고 緩한 者는 細辛을 甘草로 바꿔서 微汗을 取한다.

(2) 桂枝加附子湯과 鑑別

本方은 表證無汗과 少陰病陽虛證이 兼한 것을 治한다. 桂枝加附子湯과 다른 것 같으나 같은 妙味가 있다.

4) 臨床應用

現代臨床에서 本方은 陽虛에 다시 外邪를 感한 境遇뿐 만 아니라, 急慢性腎炎, 肺心病으로 因한 浮腫이 虛性 水停에 屬하고 表證을 兼했을 境遇<sup>44)</sup>

43) <天津醫藥>1978;8:366

44. 少陰의 腎陽不足으로 水氣在表하여 浮腫, 脈沈小等の 證狀이 나타나는 것을 治療한다. (<金匱要略>) 病人이 寒熱而厥하여 面色不澤, 冒昧, 兩手忽無脈, 或一手無脈하는 것은 發汗이 되면 將次 좋아지는 것이므로, 마땅히 麻黃附子甘草湯을 使用하여 發汗을 돕는다. 發汗이 되면 病이 낮게 된다. (<衛生寶鑑·補遺>)

42. <江蘇中醫> 1959 ; 2 : 12

3) 基本病理

-中略(表參考)-

主症：惡寒微熱，身痛無汗，四肢不溫，舌淡苔白不厚，脈沈細。

副症：或身面浮腫，氣短，小便不利，脈沈小。



病 理

● 病少陰病而外合太陽…「張隱庵」

● 少陰病得之二三日脈沈發熱不解者麻黃附子甘草湯微發其汗也

蓋謂二三日不見吐利裏寒之證知邪氣衰然熱乃在外當發汗之但不可過「唐容川」

에 常用한다.

5) 臨床報告

(1) 少陰傷寒

證狀：頭痛發熱하고, 清稀가 흐르고, 全身이 不便하였다. 머리를 기울여 자려하고, 脈이 浮하지 않고 도리어 沈하였다.

辨證：少陰傷寒證이다.

治療：附子 12g, 炙甘草 6g, 麻黃 6g을 一劑服用한 後 汗出表解하였다. 後에 다시 保元湯으로 바뀌서 服用한 後 治愈되었다<sup>45)</sup>.

(2) 陰水(浮腫)

性別 및 年齡：女, 25歲.

證狀：4個月餘부터 全身浮腫으로 特히 腰以下가 甚하고 누르면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腰가 酸痛重痛하고, 小便이 적고, 便閉하고, 四肢厥冷, 面色灰暗하고, 舌質胖 色淡 苔白하고, 脈沈細 尺弱하였다.

辨證：眞陽이 虛衰하여 水氣가 汎濫하여 四肢에 流布된 所致이다.

治療：麻黃 4.5g, 附子 9g, 甘草 5g, 黑頭 30g, 車前子 12g을 5劑를 服用한 後에 大便이 澇泄하고, 小便이 清長하며, 頭面浮腫이 失退하고, 腰以下의 腫도 退하였다. 精神이 좋아지고 面色이 점점 潤澤해졌다. 麻黃을 減하여 3g, 附子를 6g으로 하여 3劑를 服用한 後 浮腫이 없어지고 腰冷이 除去되고 食納도 좋아졌다<sup>46)</sup>.

(3) 腎性水腫

性別 및 年齡：女, 50餘歲.

證狀：初期에 眼瞼浮腫이 있고 이어 全身腫瘡으로 누르면 凹陷이 생기고, 體重이 많이 增加하였고, 行動이 困難하고, 食欲이 不振하고, 大便이 軟하고, 小便이 少하였다. 本來 心悸氣促 및 兩脚浮腫이 없었고, 脈이 沈小하였다.

辨證：腎臟性浮腫으로 診斷하였다.

治療：麻黃附子湯을 連服한 後 땀이 腿部以下로 흐르며 全身이 갑자기 舒適해졌으나, 다만 浮腫消失은 뚜렷하지 않았다. 五苓散 및 濟生腎氣丸을 多服한 後 效果가 매우 좋아 小便이 清長하여 하룻밤에 10여차례 小便을 보았다. 2週 後에 全身水腫이 消失하여 體重이 減少하였다.

(4) 少陰陽虛多寐(假寐)

性別 및 年齡：男, 14歲.

證狀：學期부터 受業中에 여러 번 책상에서 假寐상태에서 빨리 잠이 들고 친구들이 부르면 오래 지나서 깨어나며, 깰 後에도 身倦하여 如前히 자는 것 같았다. 아침 9, 10時 즈음에 思睡가 甚했지만 午後에는 좋아졌으며 理由가 分明치 않았다. 面光하고, 身疲, 小便清長, 2차례의 夜尿, 目暗, 脣淡, 옷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입고, 手足陰冷하고 舌質淡滑, 苔薄白, 脈沈細而遲하였다.

辨證：少陰陽虛이다.

治療：生麻黃 3g, 制附子 6g, 炙甘草 3g, 黃精 6g을 3劑 服用하였다. 服用後에 假寐가 減少하고 夜尿가 한차례로 줄어들었다. 5劑를 連服한 後에

45. <傷寒掇要> 271項. 人民衛生出版社. 1983年版.

46. <浙江中醫學> 1979 ; 5 : 12

治愈되었다47).

8. 麻黃升麻湯

1) 該當條文

356. 傷寒六七日 大下後 寸脈沈而遲 手足厥冷 下部脈不至 咽喉不利唾膿血 泄利下止者 爲難治 麻黃升麻湯主之

2) 類方鑑別

區分	病因 病機	主要脈證	治療原則
麻黃升 麻湯	表邪 內鬱 上熱 下寒	咽喉不利, 唾膿血, 手足厥 逆, 泄利不止, 寸脈沈遲, 下部脈不至	解表散邪, 滋陰養血, 清上溫下 (偏于升散陽鬱 之邪)
烏梅丸	陰陽 錯雜 寒熱 混淆	嘔吐或吐蛔蟲, 時作時止, 得食更甚, 心煩不寧, 痛劇, 手足厥冷	扶正驅蟲, 清熱散寒 (寒熱并用偏于 酸收)
乾薑黃 芩黃連 人參湯	誤下	飲食入口即吐	清熱祛寒, 回陽降逆 (寒熱并用偏于 苦降)
黃連湯	上下 格拒 中虛 邪陷	時嘔欲吐, 腹中疼痛, 大便不利	清上下溫, 和胃降逆, 調和中氣

4) 臨床應用

現代臨床에서 本 方은 猩紅熱, 更年期障礙로 인  
한 多樣한 病症에 應用되고 있다.

5) 衍方

(1) 千金萎蕤湯 : 本 方에서 升麻, 當歸, 知母,  
黃芩, 芍藥, 天冬, 桂枝, 茯苓, 白朮, 乾薑을 去하고,  
白薇, 青木香, 葛根, 杏仁, 川芎, 獨活을 加한 것으  
로 風溫自汗重, 冬溫發熱咳嗽을 治療한다. 冬溫으

로 咳嗽咽乾痰結하고 發熱自利의 專藥이 된다. (《  
千金方》)

(2) 防風通聖散 : 本 方에서 升麻, 知母, 萎蕤,  
天冬, 桂枝, 茯苓, 白朮, 乾薑을 去하고, 防風, 荊芥,  
薄荷, 川芎, 黑山梔, 大黃, 石膏, 芒硝, 桔梗,  
滑石, 甘草를 加한 것으로 外感風邪, 內有溫熱로  
表裏實證이 되어 惡寒發熱, 頭痛眩暈, 口苦口乾,  
咽喉不利, 大便秘結, 小便黃短, 舌苔黃膩, 脈洪數或  
滑數 等の 證狀이 나타나는 것을 治療한다. (《宣  
明論》)

6) 臨床報告

(1) 太陽傷寒誤下, 表邪不退, 外熱內陷證.

證狀 : 2次例에 걸쳐 喉痰을 앓고 한 次例 瀉  
瀉가 있었으나 治療하여 나왔으나 寒熱이 나타나  
十日이 지나도 不退하여 診察해 보니 切脈未竟하  
고 下利가 두차례 있고 四肢厥冷, 頭痛, 腹痛, 骨  
節痛, 喉頭가 모두 白色으로 腐蝕되었으며, 膿血  
모양의 痰과 血이 섞인 것을 吐하는 證狀이 있고  
六脈이 浮하나 按하면 모두 없어지고 重按하면 역  
시 微緩하여 그 맥이 떠는 回數를 알 수 없었다.  
口渴需水, 小便少, 兩足少陰脈이 乍有乍無하였다.

辨證 : 平素 喉痰이 있어 上虛下熱한 體質인데  
太陽傷寒을 誤下하여 表邪가 不退하고 外熱이 內  
陷하여 宿疾인 喉痰을 引動케 한 所致이다.

治療 : 桂枝湯에 麻黃을 加하여 解毒發汗케 하  
고 黃芩, 白朮, 乾薑으로 化水, 利水케 하여 止利  
하며 當歸는 行血通脈함을 돕고 黃芩, 知母, 石膏  
로 消炎清熱과 더불어 生津液케하며 升麻로 咽喉  
之毒을 解하며 玉竹을 써서 祛膿血, 天門冬으로  
清利痰膿케 하여 治愈하였다. (《傷寒論釋解》)

(2) 猩紅熱

性別 및 年齡 : 女, 21歲.

證狀 : 高熱, 頭痛, 咽喉腫痛, 痧疹이 있으며 顔  
色이 暗澹하여 밝지 못하고 皮下에 深腫이 있었  
다. 점차 飲食不思, 精神萎靡, 咽喉糜爛, 身熱不甚,  
遍體痧疹, 隱約皮下가 黑褐色을 나타내는 證狀이  
있었다. 面色蒼白, 舌燥唇焦, 口出腐氣, 腹部脹滿,  
大便水瀉, 不進飲食한지 이미 2日이 되었다. 脈細  
數無力하고 舌質光少津하였다.

辨證 : 熱毒이 閉下하여 能히 外達하지 못하고

47. 《傷寒論方運用法》74項,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4年版

3) 基本病理

-中略(表參考)-

咽喉不利, 吐膿血, 泄利不止, 無汗, 手足厥逆, 寸脈沈遲, 下部脈不至.



病 理

- 下焦氣虛陽氣內陷寸脈遲而手足厥逆下部脈不至厥陰之脈貫膈上注肺循咽喉在厥陰隨經射肺因亡津液遂成肺痿咽喉不利而唾膿血「張隱庵」
- 寒邪陷入厥陰胃虛氣滯故寸脈沈而遲邪鬱胃氣不升則手足厥冷然厥則下焦氣閉不行故脈不至…邪沖于上則咽喉不利痹着喉間營血故唾膿血乃發喉痹之謂也邪逼胃中水穀下奔則泄利不止「沈目南」
- 寸脈沈而遲者肺脾陽氣下陷也下部脈不至則肝家之陰亦復衰竭陰陽不相順接以故手足爲之厥逆也厥陰之脈貫膈上注肺循咽喉之後下因亡津液遂成肺痿咽喉不利而唾膿血泄利不止者陽氣下陷于陰分陰氣衰竭故難治「汪苓友」
- 陰傷則上焦清陽之氣下陷故寸口脈見沈遲手足厥冷泄利不止又陰傷則下焦濁陰之火上逆故下部脈不至咽喉不利唾膿血「高學山」
- 六腑氣絕于外者手足寒五臟氣絕于內者利下不禁咽喉不利水穀之道絕矣汁液不化而成膿血下濡而上逆此爲下厥上竭陰陽離決之後生氣將絕于內也「柯韻伯」

咽喉에 壅滯하여 高熱로 體內的 津液이 去脫된 것이다.

治療 : 麻黃 5g, 升麻 9g, 當歸 15g, 桂枝 6g, 茯苓 24g, 知母 10g, 黃芩 10g, 萎蕤 15g, 芍藥 15g, 天門冬 12g, 生石膏 10g, 白朮 10g, 乾薑 10g에 金銀花 30g, 板藍根 12g을 加하고 外用으로 吹喉散을 使用하였다. 眞猴棗 0.6g, 大獐珠 0.6g, 犀黃 0.3g, 月西石 10g, 將荷冰 0.3g, 梅版 0.15g을 細末하여 喉中에 넣어넣었다. 一劑를 服用後에 汗出, 頭面과 前胸에 痧疹이 外布되고, 體溫이 38℃가 되며 大便泄瀉가 그치고 精神이 清爽하였다. 三劑를 服用後에 咽痛이 輕減되고 發熱하지 않고 약간 糜爛되었다고 생각되어 乾薑, 桂枝, 麻黃을 減하여 5劑를 服用한 卽 咽痛이 大減하고 精神이 恢復되었다. 後에 繼續해서 清熱解毒和胃之劑로 調理한 後에 治愈되었다<sup>48)</sup>.

III. 結 論

1. 麻黃湯類는 太陽病篇에 4個, 陽明病篇에 1個, 少陰病篇에 2個, 厥陰病篇에 1個 等 總 8種의 處方이 4個의 病脈篇에서 應用되었다.

2. 基本病理로 麻黃湯은 風寒外束衛陽被遏, 大青龍湯은 表寒裏熱營衛俱實, 小青龍湯은 表寒外束水飲內阻, 麻杏甘石湯은 熱邪壅閉肺實肅降, 麻黃連翹赤小豆湯은 寒邪外束濕熱瘀滯, 麻黃附子細辛湯은 寒邪外束陽氣內虛 麻黃附子甘草湯은 寒邪外束裏虛甚 等이 가장 많이 言及되었다.

3. 臨床에서 確證으로 認識되는 主症으로 麻黃湯은 惡寒, 發熱, 身體疼痛, 無汗, 大青龍湯은 麻黃湯의 主症에 煩燥症, 小青龍湯은 麻黃湯의 主症에 乾嘔, 痰多稀薄, 麻杏甘石湯은 汗出而喘, 麻黃連翹赤小豆湯은 發熱 惡寒 無汗 心煩 癢痒 小便黃, 麻黃附子細辛湯은 發熱 惡寒 無汗 四肢不溫, 麻黃附子甘草湯은 惡寒 微熱 身痛 無汗 四肢不溫, 麻黃升麻湯은 咽喉不利 吐膿血 泄利不止 無汗 手足厥逆 等으로 整理할 수 있다.

4. 臨床의 活用에서 麻黃湯은 肺炎, 上氣道感染, 蕁麻疹, 失音 等에, 大青龍湯은 高熱, 流行性腦脊

48. <傷寒論臨床實驗錄> 286項

髓膜炎, 喘息 等에, 小青龍湯은 氣管支肺炎, 百日咳, 浮腫, 氣管支喘息, 肺性心 等에, 麻杏甘石湯은 氣管支喘息, 大葉性肺炎, 氣管支肺炎, 百日咳 等에, 麻黃連翹赤小豆湯은 蕁麻疹, 麻黃附子細辛湯은 肺性心, 心臟不整脈, 腎證候群, 三叉神經痛, 坐骨神經痛, 麻黃附子甘草湯은 冠上動脈硬化證, 慢性腎盂腎炎 等에 結論 3번의 主證을 포함한 경우 應用되었다.

### 參 考 文 獻

1. 吳謙 : 醫宗金鑑, 서울, 大星文化社, 1983.
2. 文瀾典外 : 傷寒論精解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부, 1998.
3. 姜鎭春外 : 傷寒學, 서울, 一中社, 1992.
4. 柯琴 :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5. 尤在涇 : 傷寒貫珠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6. 陳修園 : 傷寒論淺註, 台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72.
7. 金聖勳外 : 東醫病理學, 大田, 한림원, 1994.
8. 成無己 : 注解傷寒論, 珍傲宋版印, 1987.
9. 丹波元簡 : 傷寒論輯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10. 冉雪峰 : 冉注傷寒論, 重慶,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2.
11. 杜雨茂 : 傷寒論辨證表解, 西安, 陝西科學技術出版社, 1984.
12. 喻嘉言 : 喻嘉言醫學三書, 南昌, 江西人民出版社, 1984.
13. 丹波元堅 : 傷寒論述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15. 李培生 主編 : 傷寒論講義,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14. 劉渡舟 主編 : 傷寒論辭典, 북경, 解放軍出版社, 1988
16. 金琦顯 : 傷寒溫病 論爭의 概括的 研究, 大韓醫學會誌, Vol.11, No.1, p.95, 1991.
17. 박찬국 : 傷寒論 三陰三陽에 關한 研究, 原典醫史學會誌, Vol.7, No.1, p.74, 1993.
18. 金俊錡 : 傷寒六經中風에 對한 文獻的 考察, 大韓東醫病理學會誌, Vol.10, No.1, p.32, 1996.
19. 宋炳基 : 傷寒論과 思想說의 比較, 四象醫學會誌, Vol .7, No.1, p.1, 1995.
20. 崔善美 外 : 「傷寒論」, 「金匱要略」에서 煩躁의 病理에 對한 文獻研究, 東醫病理學會誌, Vol.10, No.1, p.54, 1996.
21. 唐容川 : 傷寒論淺注補正, 台北, 綜合出版社, 1975.